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재단 유통 콘텐츠

공연  
전시  
미디어아트  
필름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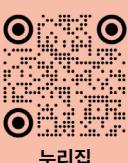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이하 ACC재단)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보급,  
이용 촉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창·제작한 공연, 전시, 미디어아트,  
필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아시아의 가치를 담아 유통하며,  
세계와의 문화적 연결을 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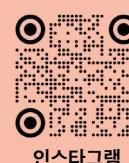
이 콘텐츠북은 ACC재단이 유통하는 콘텐츠와 예술적 비전,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의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의 장,  
그 중심에서 ACC재단은 새로운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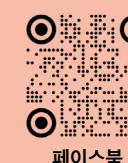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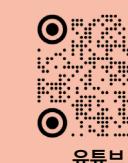
누리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 목차

## 01 전시

008 시각예술 콘텐츠 유통 협력

### 전시

009 길 위에 도자

010 꿈의 기록

011 ACC 미래운동회

012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013 아쿠아 천국

014 애호가 편지

015 하느풍경

### 어린이 전시

016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017 천일야화의 길

## 02 미디어아트

020 9개의 지구 언어로 쓰인  
인터넷라 메시지

021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022 고사리 걸음

023 공생도시

024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025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026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

027 꿈

028 끝섬 VER.2

029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

030 뉴월드? //

031 데이터 - 버스, 광주

032 둘러보기

033 떠도는 풍경

034 레이온 공장 달리기

035 루덴스토피아

036 마못의 날: 풍수토니 필의 일주일

037 마지막 추모비

038 머신 러닝

039 메타 천사섬의 비밀

040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041 바벨x바벨 //

042 부식 풍경

043 불과 얼음의 노래 ver.ACC

044 사운드 월

사운드 슬로프

045 살핌 운동

신고서화 나들이

047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색들

048 아홉, 구름, 꿈

049 이별만상 – 여러 가지 안녕

050 인 마이 백야드

051 일렉트릭 드림

052 입체 프레파라트

053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Everything will be OK

054 조립된 풍경화

055 지상지하

056 차원 너머

057 찬드라 연대기: 인 뉴로버스

058 카본 클럭 @ACC

059 크로마토그래피

060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061 화석이 될 수 없어

## 03 필름

064 선유후부가

065 스틸 사이드

066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067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068 친란함의 무덤

## 04 공연

072	공연 콘텐츠 유통 협력	<b>다원</b>
		092 안티 – 샤먼 샤먼 클럽
	<b>융복합 공연</b>	093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073	두 개의 눈	
074	비비런	<b>뮤지컬</b>
075	자유결혼 – 영화더빙쇼	094 술루우수우
		095 콩짝 두 번째 이야기 – 열쑤
	<b>연극</b>	
076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b>음악극</b>
077	나는 광주에 없었다	096 그 물
078	나를 잊지 말아요	097 대동춤
079	남편 없는 부부	098 스토리 인 아시아
080	대리된 존엄	099 시리렁 시리렁
081	동상기	100 짹하고 해 뜯 날
082	레드 올랜더스	
083	로제타	<b>무용극</b>
084	사사로운 사서	101 1도씨
085	세메테이	102 공허와의 만남
086	시간을 칠하는 사람	103 마디와 매듭
087	전쟁 후에	104 속삭임의 식탁
088	접시꽃 길 85번지	105 솔직히
089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	106 척
090	파인 다이닝	107 히어데어
091	한낮,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연약한 것들: 그 다음, 점프! 점프!! 점프!!!	

## 05 청소년·어린이 공연

	<b>청소년 공연</b>
110	길 위의 아이
	<b>어린이 공연</b>
111	개굴개굴 고래고래
112	거인 양갈로
113	괴물 연을 그리다
114	깔깔나무
115	나무의 아이
116	마법의 샘
117	막대뚝딱 피지컬 – 뿔난 오니
118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119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
120	보이야르의 노래
121	세 친구
122	슈레야를 찾아서
123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124	아를을 깨물었을 때
125	어득시니
126	어디로 가야 하지?
127	용감한 탄티
128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129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130	출동! 마임소방관
131	하티와 광대들

## 06 파트너십

134	구구선 사람들
135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136	토끼전
	<b>브랜드 사업</b>
138	어린이문화원
139	문화상품점 드락

# 전시 EXHIBITION

01

# 시각예술 콘텐츠 유통 협력

협력 문의  
문화유통팀  
062-601-4665, 4671  
accfc@accf.or.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의 예술과 사유를 확장하는 실험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제작하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참여형 설치, 인문 기반 전시 등 현대 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각 전시는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운영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은 기관 간 공동기획, 순회전시, 콘텐츠 라이선스 제공, 현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문화교류와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 유통 콘텐츠

### 기획 전시

- 2022년 이후 동시대 예술의 흐름과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문화창조원의 다양한 기획 전시
- 아시아 문화자원 소장품과 연구 결과물,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 전시
-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기반 실감 콘텐츠 3종과 교육프로그램, 자율 체험 등이 결합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 커미션 작품

- 미디어아트, 설치, 인터랙티브아트, 필름 등 ACC 커미션 또는 공동 제작 작품

## 유통 방식

### 미디어아트 협력 기관 공모

콘텐츠 범위 미디어아트(영상)

공모대상 미디어아트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국내 모든 기관

공모시기 매년 11월 중

선정규모 12개 내외 기관

추진방식 **ACCF재단** 작품 제작 및 대여, 홍보 협조

**전시기관** 미디어아트 전시 운영/설치, 작품 대여료 납부, 홍보, 전시 결과 공유 등

### ACC 전시 및 작품 초청에 의한 상호 협력

콘텐츠 범위 ACC 기획 전시, 어린이전시

ACC 커미션 개별 작품(미디어아트, 설치, 인터랙티브아트 등)

추진기간 연중(예산 범위 내)

추진방식 **ACCF재단** 큐레이션 및 전시 콘셉트 기획, 작가 섭외 및 작품 제작, 작품 운송 등

**전시기관** 초청 규모에 따른 작품 대여료 납부, 공간 조성, 홍보물 제작 등

\* 전시 규모, 예산, 주요 역할 등 세부사항 별도 협의



홈페이지

전시

# 길 위에 도자

아시아 외부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현대 도자를  
이주의 경험을 가진 작가들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

도예는 아시아의 전통적 유산으로 여겨져 오며,  
그 매체적 상징성으로 아시아를 내재한다. 인류의  
역사적 이동에 따라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도예 문화는, 특히 인종과 문화의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미국에서 현대 미술로서 재해석되며  
전개되고 있다.

참여작가 4인 스티븐 영 리(한국계 미국), 린다  
응우옌 로페즈(베트남/멕시코계 미국), 세 오(한국계  
미국), 에이미 리 샌포드(캄보디아계 미국)  
이민 2세대 혹은 입양과 같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개인의 이주 서사에서  
비롯된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정체성 탐구의

장르 도자, 설치

참여작가/팀4

스티븐 영 리(한국계 미국)

린다 응우옌 로페즈(베트남/멕시코계 미국)

세 오(한국계 미국), 에이미 리 샌포드(캄보디아계 미국)

맥락에서 발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지점에서  
이들의 작품은 아시아 내에서 발현된 도자 예술과  
구별되는 이야기를 펼쳐 낸다. 《길 위에 도자》는  
양식사적 해석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맞물려 온  
이주라는 현상을 통해 현대 도예를 새롭게 읽어내는  
시도이다.



008

009

## 꿈의 기록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시기,  
김한용의 사진으로 보는 그 시절 우리의 꿈

김한용(1924-2016)은 1950-1960년대 보도사진  
작가로 한국전쟁을 비롯한 격동의 역사를 흑백  
사진으로 기록했고, 산업화가 궤도에 오르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제품을 광고 사진 속에 담아낸  
인물이다.  
전시 『꿈의 기록』은 작가가 남긴 두 세계를 다룬다.  
흑백 사진 속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끗꿋하게  
일상을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과 광고 사진이  
만들어낸 풍요와 이상의 이미지는 결국 '한 시대를  
잘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꿈'으로 연결된다.

[장르 아카이브 전시](#)

[참여작가/팀 김한용\(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기록물\)](#)



홈페이지

## ACC 미래운동회

예술과 기술의 미디어아트 운동회 『ACC  
미래운동회』는 '운동회'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래의 새로운 운동회 문화를  
제안한다.

전시는 아카이브 전시와 체험형 전시로 구성된다.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운동회의 역사와 미래운동회  
연구·개발 과정을 조망하며, 기술과 신체 활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체험형 전시에서는 관객이  
미래 운동회의 종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디지털 기술과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와 함께 두 가지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장르 행사, 전시, 디지털아트, 스포츠, 게임](#)

전시 기간 동안 매주 참가자를 모집하여 함께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해커톤 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운동회의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나간다. 이후,  
해커톤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실제로 체험하는  
미래운동회 본 대회가 개최되며, 관객들은 직접  
개발한 운동회 종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010



011

전시

##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극작가 박조열의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을  
조명하고, 1970-80년대 공연계의 '검열' 제도를  
살펴보는 전시

박조열(1930-2016)은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중 월남해 약 13년간 군인으로 복무하고,  
예편 후 극작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1974년 집필한  
희곡 <오장군의 발톱>은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상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유머와 아이러니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쟁'과 '군대'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냉전 체제의 심화와 반공 이념이 강조된  
시기 '불온한 문제작'으로 간주되어 오랜기간  
공연되지 못하다가, 1988년 14년 만에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된다. 198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희곡상을

[장르 아카이브 전시](#)

[참여작가/팀 박조열\(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장 기록물\)](#)



전시

## 아쿠아 천국

수생태계와 인간의 대안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융복합 전시

『아쿠아 천국』은 인류의 신화와 역사 속에 깃든  
물의 의미를 탐구하며, 자연생태를 순환시키고  
치유하는 다양한 물의 서사를 소개하고,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11명이 참여하는 이 전시는  
인간이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살아가며 마주했던  
'물',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함께 견뎌낸 '물',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며 서사를 창조하는 '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절대 조절자로서의  
'물', 우주를 구동하는 물리학적 유체로서의 '물',

[장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참여작가/팀11](#)

[국내7 권혜원, 김태은, 닉드정, 리경, 부지현, 빠키, 에코 오롯  
국외4 리우 위\(대만\), 마리안토\(인도네시아\), 아드리앵 M &  
클레어 B\(프랑스\), 이 이란\(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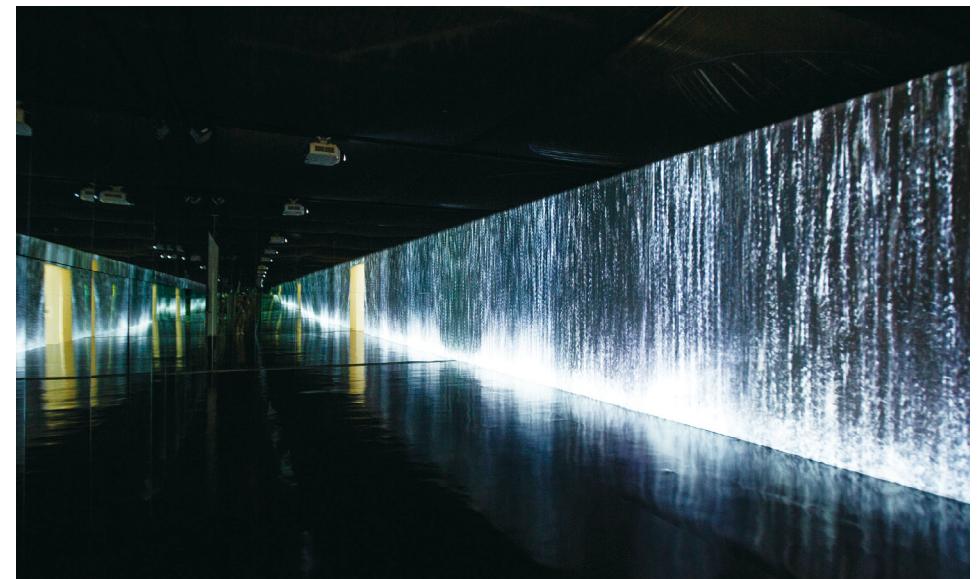
[해외전시](#)

[2025.7.25.~9.19.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

[2025.10.7.~11.28.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012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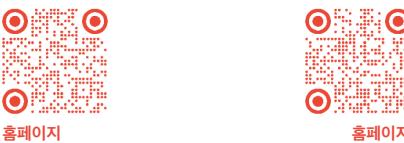
# 애호가 편지

트로트와 뽕짝 리듬의 아시아 대중음악을 매개로  
도시 소리 풍경을 들려보는 매체 예술 전시

전시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와 뽕짝 리듬의 아시아 음악을 매개로 매끈한 도시의 틈새 속 투박한 삶의 자취를 들려본다.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 두 주제로 나뉘어 전시된 작품들은 도시 공간에 늘 함께하지만 우리가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간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들을 들춰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ACC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 트로트와 유사한 형식과 정서를 가진 아시아 4개국의 음악을 들어보고, 〈오아시스레코드로 보는 트로트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오아시스레코드가 발매한 음원과 각종 자료 중 트로트와 관련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두 연계전시는 트로트와 아시아 대중음악에 대한



홈페이지



홈페이지

# 하느풍경

장르 설치, 영상(맵핑 프로젝션, 미디어큐브)

참여작가/팀11

국내<sup>9</sup> 김남주+지강일, 김하늘, 박천강(HAPSA),  
박훈규+이선경, 삶것, 서울익스프레스, 스튜디오1750,  
이이남, 한석현  
국외<sup>2</sup> 드리프트 콜렉티브, 평지아청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는 전시

《하느풍경》은 무더운 여름철 불어오는 서늘하고 건조한 서쪽 바람인 하느바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촉각적 감각을 시작적으로 확장해 기후위기를 당면한 동시대인들의 인식을 활기하는 풍경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1부 |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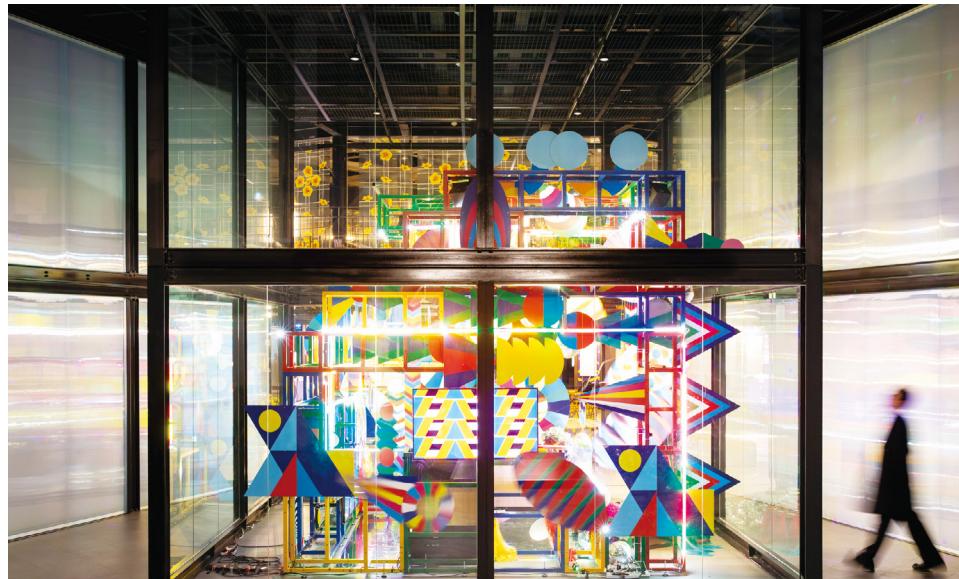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드리프트 콜렉티브, 이이남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송고함을 일깨우는 풍경을 소방도로에 덧입혀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 2부 | 중경

‘인간에 의해 변해가는 풍경’은 박훈규+이선경, 서울익스프레스, 스튜디오 1750, 평지아청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개입으로 자연이 변해가며 생겨난 풍경을 재해석한다.

## 3부 | 근경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풍경’은 김하늘, 박천강, 김남주+지강일, 삶것, 한석현의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대의 방식을 확인하고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014



015

##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홈페이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간한 그림책 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아시아 옛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한  
어린이 전시이다.

어린이 관람객이 전시 속 공간에서 그림책 주인공이  
되어 중앙아시아 문화, 자연, 동물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에 사는 푸른  
물의 여왕 술루우수우의 이야기 <이식쿨 호수의  
술루우수우>, 우즈베키스탄의 넓은 초원과

장르 어린이 체험형 전시

참여작가/팀7

국내4 강혜숙 작가(이식쿨 호수의 술루우수우)

소윤경 작가(나의 구름 친구)

정현진 작가(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주)인디고

국외3 알틴 카파로바(이식쿨 호수의 술루우수우)

무하바트 울다쉐바(나의 구름 친구)

두이센 캐네스 오라즈베쿨리(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자연현상의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낸 <나의 구름  
친구>, 그리고 중앙아시아 최대 명절 나우리즈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를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016



## 천일야화의 길



홈페이지

중동 지역의 전래 이야기, 설화, 신화 등을 담은  
아랍 구전 문학의 백미인 <천일야화>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한 전시

장르

아카이브 자료, 유물, 실감콘텐츠(라이브스케치)를 결합한  
체험형 전시

참여작가/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 전시는 ACC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모두 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전시  
주제는 각각 기원과 전승(텍스트와 영상) 번역  
연표 세헤라자드(아카이브 자료와 영상) 사라진  
아시아(서구화된 아시아) 라이브스케치 체험(주요  
캐릭터 6종 연계 실감체험) 전 세계의 번역본(주요  
국가 번역본 소개) 아랍인의 삶과 풍습(서아시아  
관련 유물과 소장 자료) 아시아이야기지도와 VR  
전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터뷰 및 다큐 영상 3종, 신기술융합형 전시 콘텐츠 1종, 온라인 VR  
전시 1종 등이 본 전시를 위해 제작 및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017



미디어아트

MEDIA ART

02

# 9개의 지구 언어로 쓰인 인터스텔라 메시지

외계지성체와의 소통을 위해 인간의 언어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담은 인터스텔라 메시지이다. 특히 지구 언어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외된 세계의 언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현재를 우주에 알리고자 한다. 먼 우주를 향하는 인터스텔라 메시지는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하는 우주의 메아리이다.

\* 본 작품은 2021년 <6개의 지구 언어로 쓰여진 인터스텔라 메시지>(원제)로 제작되었으며, 2022년 대만 C-LAB 전시를 통해 업데이트 되었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15분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인해피서킷



미리보기



미리보기

# 고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랑즈워+사라 웅의 작품에는 도시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아시아문화아카이브 컬렉션 중 하나인 김기찬(1938-2005)의 사진을 활용했다. 1970년 서울역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네 명의 아주머니가 머리에 대야를 이고 걸어가고 있다. 이 몸짓은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거리를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도시의 구조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몸의 움직임을 예시한다. 도시에 대한 작가들의 구조적 분석은 비단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여성으로서 인물의 삶에서 출발하는 사회·문화적 체제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간다. 사진 속 인물의 몸짓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즈음 태어난 또 다른 여성에 의해 재상연되며, 두 보행자 사이에 일어나는 세대의 간극을 뛰어넘는 만남과 대화를 보여준다.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9분 10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자료제공

원본 사진 김기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 제공

창작진 랑즈워+사라 웅



# 고사리 걸음

“자신의 역사를 복제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들이 있다.  
시간을 고요히 훑으며 음지에 녹광을 내비치는 자!  
같은 행성의 생명체이면서도  
인류 이전부터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양치식물을 향한 경외심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붉은 잎맥과 푸른 허관이 지나간 표피,  
흐르는 햇빛을 마시고 내뿜는 호흡…  
양치식물은 인류의 유전자가 겪은 적 없는  
그들의 하늘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전령이다.  
빛의 방향, 습도, 천적의 모습까지 함축하고 있는  
모습은 시대의 알고리즘을 반영한 완성된 개체이자  
당시의 유전 정보를 응축한 포자이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생체 메커니즘을 경제적으로 수정하는 식물들은  
‘자연’의 대명사인 동시에 냉정하고  
단호한 ‘프로그램’과도 다를 바 없다.”

— 작가노트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2분 25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을지로



미리보기



미리보기

# 공생도시

작품은 메콩강과 공생해온 도시를 그린다.  
작품 <공생도시>는 메콩 5국의 수도 항공사진의  
도시구조를 단서와 동기로 삼은 상상의 시공간이다.  
항공사진과 2차원으로 생성한 패턴을 조합하고,  
이를 3차원으로 변환하여 생동하는 시공간의 춤을  
가상으로 구현했다.

오늘날의 지도에는 오랜 공생도시의 춤이 끊겨  
있다. 아시아의 지도에는 근대를 관통하며 좀 더  
고집스러운 인류의 흔적이 남았다. 자연을 압도하는  
도시기술은 변덕스런 천재지변의 불안을 소거하고  
인류의 영속적인 안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제작연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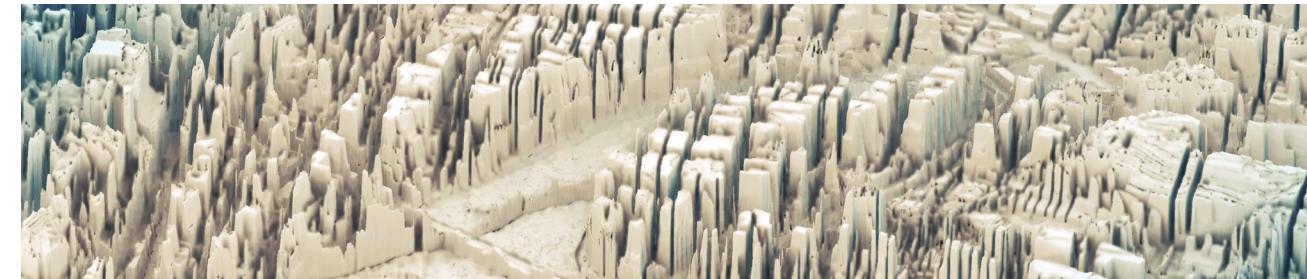
러닝타임 9분 59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대천



022



023

##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SNS발달로 작품의 의미를 음미하기 보다는 인증  
사진이라는 2차원의 네모난 공간 속에 그 의미를  
가둬버린다.

이 작품은 그 너머에 대한 이야기이다.  
벽은 단절이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진다면 어떨까?

벽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 있을까?  
그 너머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의 영감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합쳐져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확장시킨다.  
그 너머에서의 시간은 중요치 않다.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시점들이 뒤섞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에 이른다. 더 이상의  
벽은 없다. 오직 그 너머만 존재할 뿐이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3분 45초

제작형식 4채널 영상,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창작진 프롬(이수진)



미리보기



미리보기

##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박고은은 도시와 건축에 관심을 두고 연구에  
기반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짓기 위해 불인 이름들은 어디서 왔을까?  
<글자를 입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에서 작가는  
사라지거나 잊힌, 광주의 오래된 땅과 길의 이름을  
복원한다. 옛사람들이 무등산 서석대를 보고 광주를  
'돌이 물처럼 흘러내린 곳'이라는 의미의 '무돌(물과  
돌의 합성어)'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고유지명의 경우 주변의 풍경을 언어로 변환한  
사례가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 고유지명들은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되며 오늘날 실제 말소리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작가는 잊힌 땅과 길 이름을 수집하고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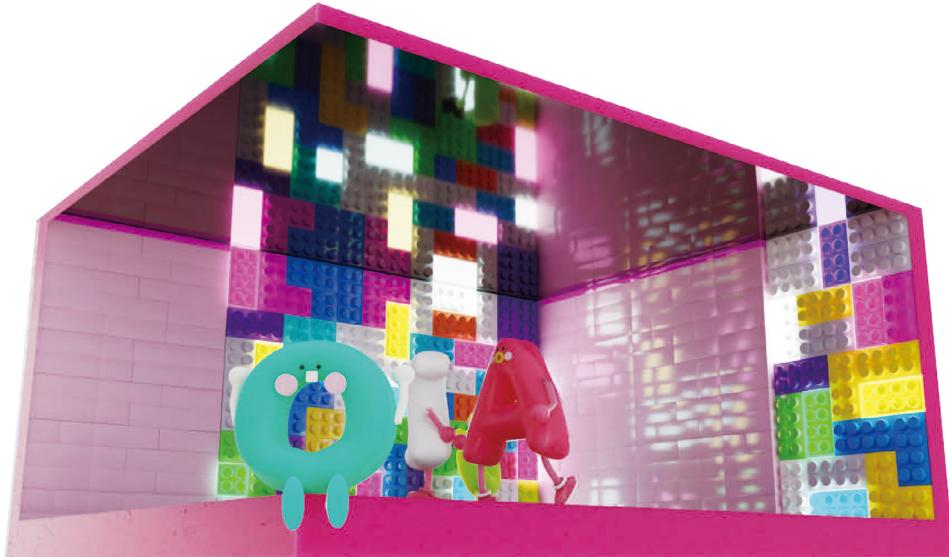
제작연도 2023

제작형식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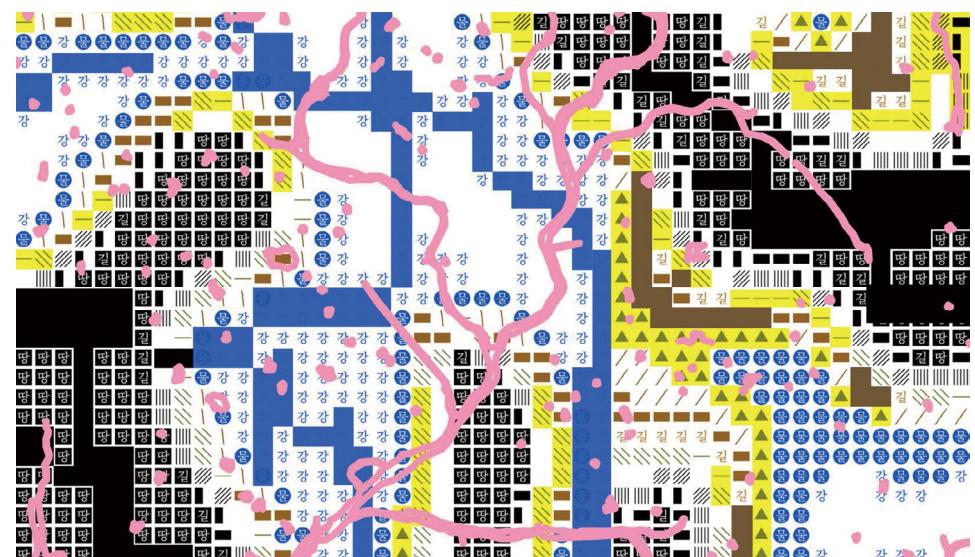
창작진 박고은

사라진 옛 이름들을 지도 좌표 위에 되살린다.  
낯선 단어가 표시된 오브제를 관객이 옮겨놓을  
때마다 스크린 위에는 오늘날 광주 시민들에게 조차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를 이름에 담긴 과거의 흔적과  
이야기가 담긴 지도가 나타난다. 지명에 담긴  
지역과 사회의 변화상을 다채로운 선과 면으로 옮긴  
지도 위를 산보하다 보면 도시에 얹힌 풍부한  
이야기에 접속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024



025

##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



미리보기

〈길다란 지구, 픽토그램 정글〉은 두 가지의 영상으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 작업으로, 바닥과 벽을 '지구'와 '정글'로 치환한다. 이조흡은 바닥면 '지구'에는 삶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벽면 '정글'에는 자연 속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담아, 자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연이라는 두 가지 시점을 교차시킨다. 작가는 '정글'에는 개, 고양이처럼 익숙한 개체부터 산양, 표범, 코뿔소, 피라냐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개체를 동시에 나열하고, 화면 속에서 확대·축소한다. 각 개체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힌디어로 '살아있다'고 외치며 각각의 캐릭터로서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작가는 '살아있다'는 단어와 그 의미를 조명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있고 살아가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주변에 생성되며 다른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조흡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라이브 링'을 차용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바닥면 '지구'를 거닐며 '라이브 링'에 들어가 함께 살아있음을 재확인한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026

## 꿈

〈꿈〉은 난파되었던 보물선이 꿈꾸던 아름다운 항해를 자연의 모방을 통해 표현하는 아나몰픽 작업이다. 수많은 보물을 싣고 항구를 떠났던 신안선은 결국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풍랑을 맞이하여 물속으로 사그라들었다. 풍랑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신안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꿈〉에는 넘실대는 파도를 가르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평화롭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신안선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작가는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생동감과 안정감이 있는 보물선을 표현한다. 자연을 모방하는 과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파티클이다. 파티클은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유사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는 자연의 역설적인 특징을 그대로 지닌다. 이러한 파티클들이 모여서 다채로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자연의 모습을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4분

제작형식 아나몰픽, 파티클, 4216×1200px

창작진 장유환, ACC 공동 기획 개발

구성한다. 이처럼 어떠한 위태함이나 불안함이 없이 온전히 평화롭게 항해하는 보물선의 모습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안정감과 평화가깃들게 한다.

- 신안선의 스캐닝 데이터를 재해석한 3D 아나몰픽 영상을 통해 파티클 애니메이션으로 신안선의 정밀한 움직임을 표현하여 몰입감 강화
- 초현실적으로 신안선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 파티클 애니메이션의 최고급 기술 사용



027

## 끝섬 VER.2



미리보기

〈끝섬(VER.2)〉은 멸종된 동물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인간 존재인 작가는 비인간 존재가 '되기'를 상상하며 자신의 신체를 멸종 동물의 신체와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이 존재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각하는지를 느껴본다. 외딴 섬은 자연이 만든 감옥이다. 넘을 수 없는 단조로운 바다의 벽에 둘러싸인 그곳은 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끝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이미 멸종된 동물들—모리셔스 파랑비둘기, 파란영양, 돼지발반디쿠트, 모아, 와이마누펭귄, 스텔라바다소, 여행비둘기, 독도강치, 판타섬땅거북, 아즈에로거미원숭이—과 반딧불이 같은 멸종 위기종, 눈알해파리라는 상상의 생물이 거주한다. 인간 세계의 시스템을 구동·유지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가 버려진 사물들도 곳곳에 등장한다. 이들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자화된 섬 공간을 공유 지대로 삼아 머무르며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8분 41초

제작형식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정혜정

각기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섬과 세계를 인식한다. 작가는 이들이 감각하는 시·공간을 상상하고 하이브리드가 되어보려 한다. 섬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들은 서로 눈을 맞추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다른 살아있는 세계들을 인식하는 순간에 짧게 교차한다. 화면은 한 존재의 시선에서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릴레이처럼 연결되고, 땅 아래 웜홀과 같은 구멍으로 미끄러지며 감각적, 심리적 공간을 통과한다. 결국 섬 위로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모두가 물속에 잠기며 끝이 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028



미리보기

##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영생과 미식, 그리고 과시를 위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희생되어 왔다. 어떤 종의 특정 부위가 갖는 효능에 관한 그릇된 믿음은 엉터리 신화를 만들어 냈고, 지금도 그 효능을 맹신하는 많은 이들은 남몰래 그러한 종들을 소비한다.

〈내가 돌아온 날 그는 떠났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신화가 된 곰에 관한 이야기다. 곰의 담즙이나 발바닥은 예로부터 정력과 미식 재료로 유명해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곰의 머리와 가죽은 부잣집 한편에 트로피가 되어 놓여있다.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잔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초현실적인 우화 형식의 영상을 통해 희극적으로 비틀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그리고 지구가 마주하고 있는 불안과 겹쳐보고자 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스크립 모션, 3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정종완



029



## 뉴 월드? //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며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의 이면을 다른 작품이다. 2020년 말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NFT는 예술계에서도 디지털 예술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많은 작가에게 새로운 탐색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들은 NFT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다.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은 가상자산의 채굴, NFT 인증 작업 등을 위해 고급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때 과열된 네트워크는 정전을 일으킬 정도의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자 폐기물을 생산하는 등 환경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채굴자와 NFT 생산자는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데이터 시각화 영상,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디지털 세로토닌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작품은 NFT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오픈씨(OpenSea) 데이터와 컴퓨터 부품 사진을 활용하여 NFT가 야기하는 환경 문제를 다룬다. 현재 디지털 자산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거대한 파도로 표현한 작품의 이미지는 바닷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030

## 데이터-버스, 광주

대만 출신의 4인 그룹 투엔터(2ENTER)는 게임엔진과 웹 인터랙션으로 도시와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ACC 커미션 신작 <데이터-버스, 광주(Data-verse, Gwangju)>는 광주의 역사와 자리,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뉴스, 항공, 날씨, 검색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작품 안에서 흐르며, 관객이 직접 쓴 텍스트가 가상 도시 속에 투사된다. 이 작품은 데이터가 오늘날 우리의 의식과 현실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탐구한다.

\*〈ACT 페스티벌 2025 - 뉴로버스: 깨어있는 우주를 향해하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5

러닝타임 가변 시간

제작형식

인터넷 기반 실시간 인터랙티브 디지털 영상, 프로젝션 매핑

창작진 2ENTER(대만)



031

##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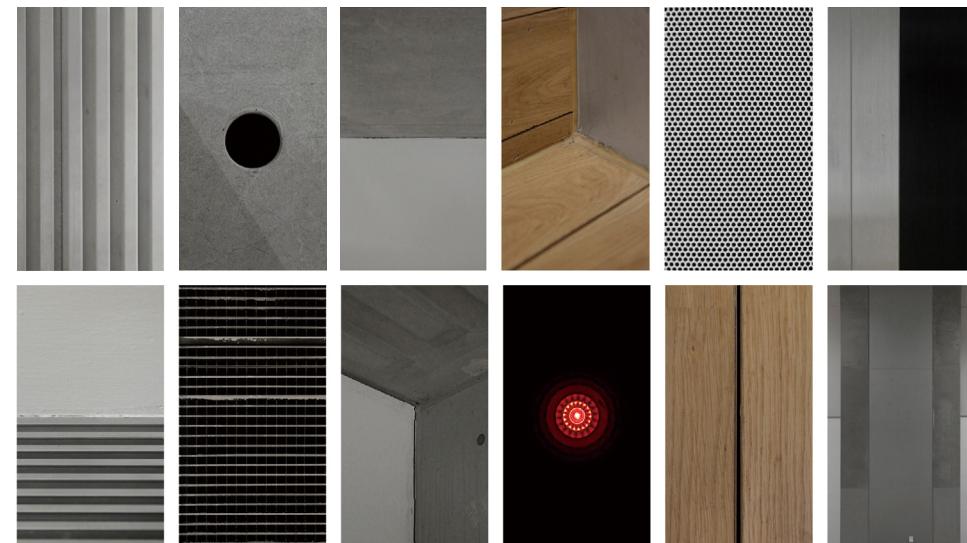


VR전시 ⑩

〈둘러보기〉는 컬렉티브 새로운 질서 그 후가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웹 생태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실천적 태도를 물리적 공간에 적용해 선보이는 무빙 이미지이다. 작가들은 시선이나 눈높이를 달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본 전시관을 걸으며 포착한 구석, 모서리, 틈과 같은 12개의 요소에 주목한다.

이는 보행자가 무심코 지나쳤던 대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경험을 상기하며, 웹상의 사용자 역시 거대 플랫폼이 구획한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보다 자율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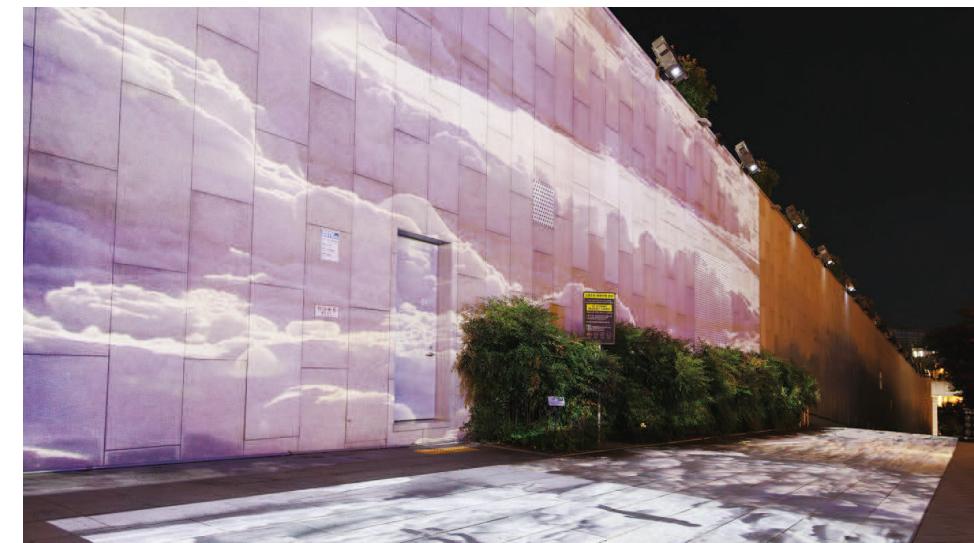


032

## 떠도는 풍경

드리프트 컬렉티브(DRIFT Collective)는 유빙(流氷)을 관찰하는 탐험대에 동참한 작가들이 중심이 된 작가그룹이다. 러시아의 아무르강에서 시작해서 홋카이도의 시레토코(知床) 지역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빙은 본래 어촌마을인 샤리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작가들은 〈떠도는 풍경〉을 통해 샤리에서 본 유빙 풍경, 유빙 주변의 소리, 유빙이 오지 않는 계절의 샤리의 모습 등 수년에 걸쳐 수집한 유빙의 기록들을 전달한다. 기후위기로 변해가는 자연현상을 기록하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하니풍경〉 커미션 작품



033

# 레이온 공장 달리기

김재민이는 공장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달린다. 본래 사냥감을 쫓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원초적 행위였던 달리기는 오늘날 도시민들의 건강 증진 활동 혹은 취미 활동으로 변모했다. <레이온 공장 달리기>에서 작가는 한국·중국·일본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여행' 중인 공장의 자취를 뒤쫓으며, 공업지대의 이동을 중심으로 현대 도시의 탄생과 팽창, 오늘날의 소비 사회를 살펴본다.

레이온(인견)은 양복 안감, 여성 의류, 잠옷과 침구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섬유의 한 종류다. 동아시아에서 레이온은 20세기 초 일본 도레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1964년 생산 설비를 국내에 들여와 남양주 지역에서 생산했으며, 1993년 중국의 한 화학섬유 공사에 매각되었고, 2000년대 초 자취를 감추었다. 이황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레이온 생산 부지는 점점 변두리로 옮겨가고 옛 부지에는 자못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12분 30초

제작형식 아카이브,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재민이



VR전시 ③



미리보기

# 루덴스토피아

작품은 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모르는 인공지능이 이해한 두 공간과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상상해 낸 제3의 공간을 재배치해 보여준다. 개인과 사회, 현실과 상상, 생존과 유희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 곳을 우리는 루덴스토피아 - 유희적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 의지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해석한 공간의 의미를 제시하며 물리적 공간, 그리고 괴리라는 개념적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공간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괄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1

러닝타임 4분 36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창작진 슬릿스코프(김제민, 김근형)



034



035

# 마못의 날: 풍수토니 필의 일주일

작가는 자연과 사람, 책과 영화 사이를 오가며  
직·간접적으로 경험 가능한 모든 순간들로부터, 즉  
역사와 현재를 둘러보며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가늠하고 탐색한다. ‘풍수토니’는 국내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작가 나름의 방식대로 명명한  
것이다. 그는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산다.  
작가는 풍수토니처럼 매일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매일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쌓여가는 생각, 정리되지 않은 채  
이미지화된 언어들, 숙명처럼 여기는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발견하는 가벼움, 고통, 미련함, 반짝이는  
순간, 단순함, 아름다움, 궁극의 송고함을, 숙명과도  
같은 작업자의 태도를 작업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2분 25초

제작형식 디지털 콜라주, 애니메이션, 사운드

창작진 최지이



미리보기



미리보기

# 마지막 추모비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훈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다채로운 영상과 융합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해 왔다. 박훈규는 그래픽  
노블 작가인 이선경과의 협업 작품인 <마지막  
추모비>에서 사라져 가는 빙하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빙하연구가들이  
아이슬란드의 사라진 빙하의 이름을 둘에 새겨  
간직한다는 것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이미  
사라졌거나 앞으로 사라질 빙하들을 기념하는  
형식을 취한다. 과거의 존재를 둘에 새기고  
기념하는 행위는 그들의 존재를 잊었을 때 현재  
우리가 겪게 될 재앙을 알리기 위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늦었을지 모를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촉구를 담은 이 작품은 한국현대사의 상흔을  
안고 도시 전체가 추모비가 된 광주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빛고을 광주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 <하니풍경>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3D 그래픽, 사운드

창작진 박훈규, 이선경



036

037



# 머신 러닝



미리보기

인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의 행동을  
다시 인간의 신체에 대입하였을 때 이는 기계의  
움직임인가 인간의 움직임인가?  
기계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하고 패턴을 만들어서  
다시 인간의 몸에 입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계  
VS 인간이라는 대결구도가 아닌 '사이들에 있는  
것'에서 기술 문명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작연도 2021

러닝타임 10분 57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전보경



038

# 메타 천사섬의 비밀

〈메타 천사섬의 비밀〉은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신안선을 모티브로 메타버스 플랫폼(Spatial)을  
활용하여 작가적 상상을 더해 새롭게 탄생시킨  
메타버스 공간이다.  
이 작품은 보물선 3.0 연구팀이 수많은 보물과  
예술작품을 실어나르던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메타 천사섬을 발굴해달라는  
신호를 감지하고 탐사에 나서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관객은 보물선 3.0 연구팀과 함께 탐사에  
나서는 주체가 되어 메타버스 공간을 경험한다.  
메타 천사섬은 수중고고학과 신안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중고고학연구소, 가상의  
해저유물을 발견하는 공간, 보물선 3.0 오프라인

제작연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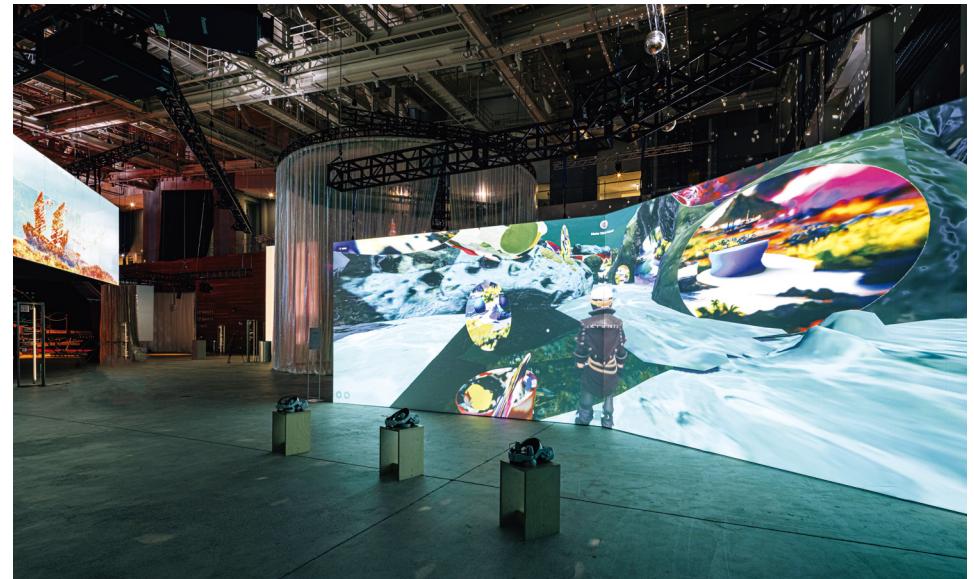
러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메타버스 플랫폼(Spatial), VR

창작진 스튜디오 앰버스703, ACC 공동기획

전시장에 있는 작품이 새롭게 재해석된 공간,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메타 천사섬의 비밀을 품고 있는 섬의  
꼭대기 공간까지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점을 넘나드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어 새롭게  
탄생한 메타버스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039

#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미리보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작품의 제목이자 메시지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30억 년 전,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단세포 유기체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당시 생존했던 유기체 중 남세균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꿨다. 남세균 덕분에 9억 년 뒤 지구 대기의 산소가 증가했고 오존층이 형성됐고, 덕분에 지구에는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다. 미미한 존재감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생명체인 남세균은 마침내 인간을 포함한 우리 생태계의 탄생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가는 남세균과 같은 작은 유기체가 지구의 환경 변화에 일조했듯이, 인간의 선택과 실천이 지구 환경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작품은 프로젝션 매핑, 앱아트, 사운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영상은 빅뱅, 우주진화론, 미래 지구의 모습을 그린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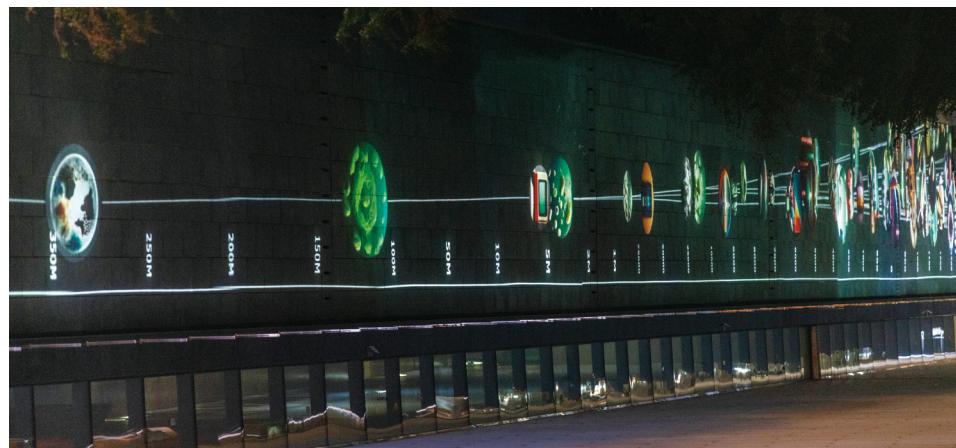
제작형식 웹 사이트 및 영상,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디지털 세로토닌

통해 생성된 이미지들은 4억 5천만 년 전부터 2060년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바닥면을 구성한다. 또 영상은 10개의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앱 아트로 안내하는데, 앱 안에서 우리는 작가와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미지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 미래 지구의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동시에 현대 음악의 근간이 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수록곡을 샘플링한 사운드가 공간을 채운다. 작가는 현재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기술을 이용해 자연을 대체할 것인지, 일련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040



미리보기

# 바벨x바벨 II

환경 위기로 말미암아 인류가 곧 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는 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현실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피로감으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 위기는 현실이다. 〈바벨x바벨 II〉은 자연을 대하는 현대인의 오만한 태도가 돌이키지 못할 기후·환경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는 참여형 웹아트 작품이다. 관객이 쓰레기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벨x바벨 II〉은 현대인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각각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며 환경 위기를 대화의 중심으로 소환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바벨탑처럼 거대한 쓰레기 탑을 쌓는 과정을 통해 관객은 환경위기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된다. 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기물, 자동차 배기ガ스, 남겨진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웹기반 참여형 디지털 아트, 컬러, 사운드

창작진 AABB(석재원, 김민재, 구자은)

음식물, 불필요하게 구입한 공산품, 스마트폰으로 생산·재생산하는 무의미한 이미지까지, 관객이 던지는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재료가 되어 바벨탑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또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이 대화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이 '배출'한 모든 것은 여과 없이 묵묵히 쌓이고 기록된다.

\*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041



## 부식 풍경



미리보기

재개발이 확정되면 기존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은 끊어진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성찰을 위해 우리는 한 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품은 재개발로 인해 없어질 마을을 3D 스캔으로 아카이빙하고 재구성하여 그 결과물을 미래와 공유하는 작업이다.

제작연도 2021

러닝타임 2분 29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흥석진

## 불과 얼음의 노래

ver.ACC



미리보기

작품은 인류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익가치로 진행하여 온 삶의 방식의 반대 향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감성, 기운, 무의식, 은유법 등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기이한 세계에 대한 작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현재 전 지구적 자연 재앙의 위기 앞에, 현세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과연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공포 등의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동시대적 고민들을 경유하고 있다.

제작연도 2021

러닝타임 7분 21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수진



## 사운드 월 사운드 슬로프

〈사운드 월〉 및 〈사운드슬로프〉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미디어파사드에서 관객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소리와 영상을 창작하는 참여형 미디어파사드 전시이다.

〈사운드 월〉은 넓이가 75m에 이르는 웅장한 미디어 월에서 한글의 기본 구성 요소인 점, 선, 면 같은 기하학적 형태가 분해되거나 재조합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반면, '사운드 슬로프'는 미디어큐브의 에스컬레이터 화면에 표현된 작품으로, 훈민정음의 기본 원칙인 원(하늘), 네모(땅), 세모(사람)가 문자로 변화하거나 다시 그 기본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곧이어 기본 도형들로 분해된다. 화면 상의 장애물과 충돌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소리를 발생해냅니다.

이번 작품에서 중심 소재로 사용된 한글은 단순히 글자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연도 2022

라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실시간 관객참여형 설치작품

창작진 태식그룹



사운드 월  
홈페이지



사운드 슬로프  
홈페이지



사운드 슬로프  
미리보기

044



## 살핌 운동

작가를 비롯한 운동가, 무용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광주 시민들과 선행된 워크숍을 통해 〈살핌 운동〉을 제작한다. 본 운동은 돌봄 노동에 사용되는 근육, 움직임으로 인해 생겨나는 신체적 취약함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돌봄을 주고받는 대상 사이의 새로운 신체적 경험을 실험한다. 돌봄의 최소 구성단위인 두 개체(돌봄을 주고받는 대상)는 서로의 신체가 운동의 지지체가 되거나, 움직임을 돋는 개체로 기능한다. 본 운동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있고, 관객은 전시장에 상영되는 운동 가이드 영상과 퍼포머들의 리드에 따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바닥의 매트와 쿠션, 말랑한 소품들은 운동의 도구이자, 각 관객의 필요에 따라 휴식이나 돌봄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언제든 운동을 따라하다 가고, 쉬거나 퍼포먼스를 관람해도 된다. 아이, 노인, 파트너, 장애인 등 누구나 옆에 있는 또 다른 관객과 일시적으로 운동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다.

제작연도 2023

라닝타임 20분, 자유 관람

제작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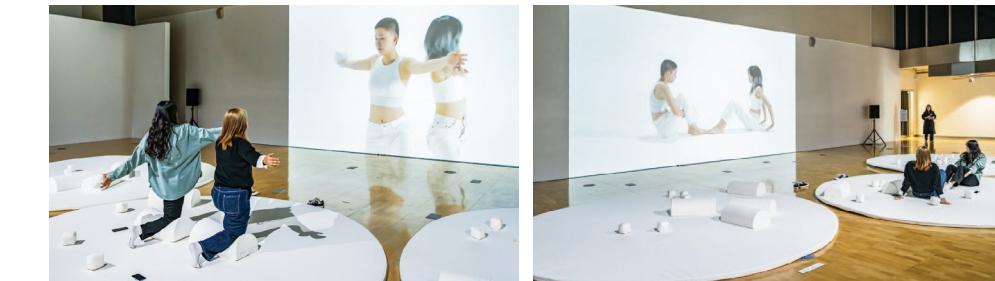
단체별 영상, 컬러, 사운드, 폴리우레탄 품 가변 설치

창작진

조영주 퍼포먼스팀 (조영주, 신선정, 정재우)

ACC 공동 기획 개발

전시장에서 관객은 설치작품에 일시적으로 머물며, 체조 활동에 초대된다. 설치작품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안전하게 감싸는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었고, 그 위에서 휴식, 돌봄, 운동 등 관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동시에 광주시민들과 돌봄 과정에서 '돌보는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경계를 흐리고 그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결국 본 프로젝트의 목적인 돌봄 관계에서의 공생/ 상호 교환성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된다.



045

## 신고서화 나들이

〈신고서화 나들이〉는 남도 고서화의 전통과 대를 이은 현대적 계승이 담긴 작품들을 기가픽셀 기술(대상을 분할 촬영하여 다시 하나로 이어붙이는 극고해상도 이미지)로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고전적인 말 그림을 재해석한 격조 높은 문인화를 선보인 윤두서의 작품, 봇질을 최소화하여 경물을 요점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남종문인화의 진수가 담긴 소치 허련의 작품,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신남화'라 불리는 새로운 화풍을 만들었던 남농 허건의 작품, 사군자에 능했던 19세기 문인화가 사호 송수면의 작품까지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온 남도 고서화에 깃든 예술가의 정신과 미학을 만날 수 있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인터넷티브 미디어 설치(고해상도 분할촬영 및 스티칭)

\* 스크린, 미디어서버 및 내비게이션 장비 필요

창작진 다원테크/ ACC 공동 기획 개발



046



미리보기

##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색들

서울의스프레스는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 각자 활동해온 전유진, 흥민기로 구성된 예술가 그룹이다. 2023년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인터넷티브 아트 랩]의 연구프로젝트 <My Backyard: 기억의 밭굴>을 진행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작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하는 색들>을 선보였다. 지나간 역사, 사라진 기억이 마치 흔적처럼 남아있는 버려진 한 공간이 있다. 이곳은 고정된 장소라기보다는, 잠시 거쳐 가는 일종의 통로이자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포털에 가깝다. 가변성과 임시성으로 정의되는 이 통로와 그 짧은 여정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지닌 운명적 한계를 다루는 동시에 찰나일지라도 순간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공동체성을 환기한다.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4분

제작형식 다채널 영상, 스테레오

창작진 서울의스프레스

파편적으로 흩어진 시각적 요소가 시간을 거슬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형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

\* &lt;하늬풀경&gt; 커미션 작품



047

## 미디어아트

## 아홉, 구름, 꿈



## 미리보기

조선 시대 국문 소설인 『구운몽』을 현대의 시각으로 각색하여, 텍스트를 바탕으로 3D애니메이션적인 시·공간적 해석을 더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각색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명령어(text prompt)로 삼고, 인공지능(deep learning)으로 구성한 영상 소설이다. 이 작업은 유, 불, 도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서술된 원문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현실과 꿈의 경계에 대하여 다양한 신경망의 작용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통해 재구성한다. 각 문장 속 텍스트를 영상과 음악의 파라미터로 적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생성기로 제작한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7분 30초

###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 창작진 조영각



048

미디어아트

## 이별만상 – 여러 가지 안녕



## 미리보기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만 행복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남이 그랬던 것처럼 헤어짐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새로운 만남에서의 다양한 모습이 있듯 이별도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간을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각자 다양한 인연과 우연으로 만나고 헤어지게 된다.

<이별만상> 작품은 영상과 음악, 공간 향수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시각적 재미를 넘어 다채널 사운드로 표현되는 청각과 향수를 통한 후각까지 작품을 체험하는 공간적 경험을 오감을 통해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제작연도 2021

##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4채널 영상, 3D 그래픽, 컬러, 사운드

## 창작진 써클(전민수)



049

## 인 마이 백야드

‘기억의 저장소’와 ‘발굴의 현장’을 상징하는 백야드(Backyard)에서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가 재현되고 이 조각들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작가들은 2023 ACC 창제작 워크숍 <My Backyard: 기억의 밭>에서 참여 연구자들과 함께 개개인의 기억의 조각을 단서처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사적인 데이터와 서사가 어떻게 새로운 상상의 공간인 backyard(뒤뜰)로, 공동의 서사로 확장되는지 탐구하는 창작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로서 서로의 연결 감각을 담은 <인 마이 백야드>라는 작품을 발표한다. 참여 연구자 각자의 이야기, 사물, 사념 등이 게임엔진, 3D 스캐닝 등 여러 기술을 통해 스틸 이미지, 영상, 텍스트, 데이터셋, 사운드 등 다채로운 미디어로 재현/재해석되어 공동의 Backyard로 병합된다. 이는 단순히 배치나 배열이 아닌, ‘연결과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6분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스테레오

창작진 서울익스프레스, ACC 공동 기획 개발



미리보기

뒤섞임’에 가까운 조합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장에 공존하면서 의도치 않은 연결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서사가 발현된다. 연구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 또한 본 프로젝트가 주목하는 ‘연결 감각’, ‘공동체성’을 찾는 여정의 일부가 된다.



050

본 작품은 필립 K. 딕의 ‘일렉트릭 드림’이라는 공상과학소설의 제목에서 기인하여 각 스토리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작가의 시각적 해석이 담긴 멀티채널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출발점인 ‘프롬프트’(명령어)로부터 시작되어, 8개의 스크린에서 출력되는 이미지들은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통해 재해석되며 ‘흔성의 꿈’을 만들어내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꿈’ 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 감정과 예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창제작 워크숍 <Electric Dream:AI+ 인터랙티브아트>에서 작가들과 시민연구자들이 함께 생성형 AI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구한 결과 작품이다.

\* 프롬프트: 생성형 AI를 작동시키기 위해 입력하는 명령 또는 질문

\* 미디어큐브용 영상이 별도로 있어 상영 포맷에 맞춰 재제작 가능

## 일렉트릭 드림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커스텀 소프트웨어(오픈프레임웍스), 대형모니터 8개, PC, 키넥트 센서, 작업용 스캐폴드

창작진 스튜디오 엠버스 703, ACC공동 기획 개발



051

## 입체 프레파라트

〈입체 프레파라트〉는 원시 고사리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전개된 작업 〈고사리 걸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ACC 미디어월에 투사된 유기적 존재에 또 다른 공간적 서사를 부여하여, 〈고사리 걸음〉에서 배양한 유기체를 가상의 디지털 테라리엄에 이식한다. 작가는 지하부와 지상부에 걸쳐 정보와 이미지가 방출되는 작품의 특징을 토양에 뿌리내려 생장하는 식물의 구조와 병치시킨다. 여기서 지하와 지상을 오가며 구조물을 체험하는 관객은 지상부에 위치한 유기체로 전달되는 영양 물질의 역할을 하게된다. 순환과 성장을 거듭 반복하며 진행되는 역사 위에서 인류와 자연이 공동체가 되어 이룩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 생태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3분

제작형식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창작진 김을지로



미리보기



미리보기

##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Everything will be OK

이 작품은 아시아의 아픈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시작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되었다.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진 국가 공권력 남용과 그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제작하였다.

모였다 흩어지는 아름다운 빛무리처럼, 아시아 민주화 운동과 국가 권력 희생자들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잊지 않고 기억하여,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과 관객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1

러닝타임 11분 58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Team Hitchcock A



052



053

## 조립된 풍경화



미리보기

광주의 오래된 동물설화를 수집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무등산의 절경과 호랑이, 구렁이, 새, 말을 공감각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광주 향토 자료 수집과 새로 창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로 대립하는 동물들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총 3장의 서사 구조로 구성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몇십 년을 거쳐 이어오는 설화 속 동물들의 성격과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사람과 사람 간의 원초적인 관계 형성을 빗대어 사회 구조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재정립하여 무등(無等)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상 속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3분 40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문창환

## 지상지하



미리보기

〈지상지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날, 만주와 소련 사이 최전방에 위치한 지하 요새에 남겨진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군종 승려와 보급병의 대화를 담고 있다. 산과 도시를 가로질러 21km에 이르는 지하 요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졌다. 병사와 승려의 대화 주제는 소련군과의 대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금지된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미로 같은 지하 요새에서 어둠 속에 갇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견뎌야 한다. 바깥으로 나서는 일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소련의 폭격으로 인해 뚫린 천장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와 더 이상 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병사는 쉽사리 안온한 어둠 속에서 바깥으로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32분 27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리 카이 청

나서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조차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깨비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폐쇄와 공포, 갑작스러운 개방이 야기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연결한다. 집단적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지 묻는다.

\*〈걷기, 헤매기〉 커미션 작품



# 차원 너머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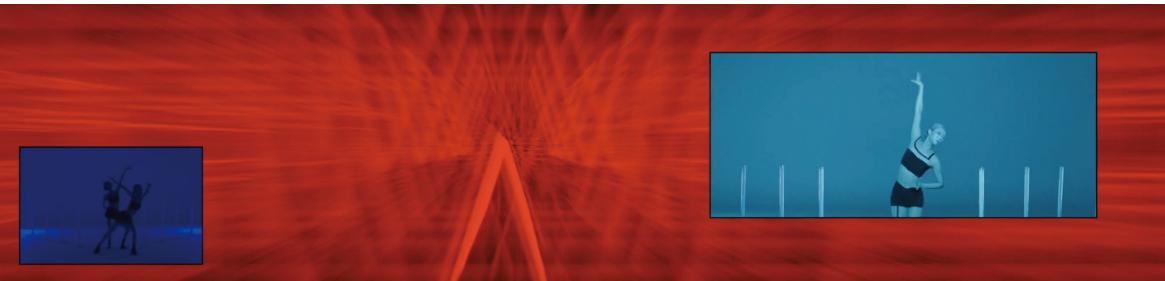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결코 2차원적이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Z축으로부터의 확장된 결과물과 같은 3차원적인 구조라고 본다. 2차원 평면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원근법을 통해 3차원적 움직임을 영상화하여 관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다.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8분 7초

제작형식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창작진 이현민



056

# 찬드라 연대기: 인 뉴로버스

'찬드라(Chandra)'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은퇴한 신경망 관리자(A.C.), 원시적 신경절의 기원(B.C.), 가장 활발했던 시기(C.C.), 그리고 꿈꾸는 찬드라(D.C.)의 네 가지 장면이 전개된다. 관객은 찬드라가 되어 시공간을 넘나들며 정보와 감각의 파도를 향해한다. 가상현실(VR), 모바일 증강현실(AR), PC 게임, 디지털 영상, 크리스탈 설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염인화는 AI와 XR을 기반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협업적 감각을 탐구하며,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바이오브(BiOVE)'를 설립해 과학과 예술을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ACT 페스티벌 2025 – 뉴로버스: 깨어있는 우주를 향해하며>  
커미션 작품

제작연도 2025

러닝타임 가변 시간

제작형식

HMD VR, 디지털 영상, 모바일 AR, 아크릴 및 크리스탈 설치, PC, 설치

창작진 염인화



057

## 카본 클럭 @ACC



미리보기

〈카본 클럭 @ACC〉는 증강현실로 구현한 포털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디지털 세계에 진입하여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증강현실(AR) 앱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작업으로 구성된다. 현재와 미래, 현실과 가상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회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증강현실 앱에서 관객은 가상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10개의 질문을 만나게 된다. 질문에 대한 관객의 답을 통해 계산된 탄소 배출량은 가상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50년의 시간이 5분 만에 흐르며 작품 속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관객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50년 후의

제작연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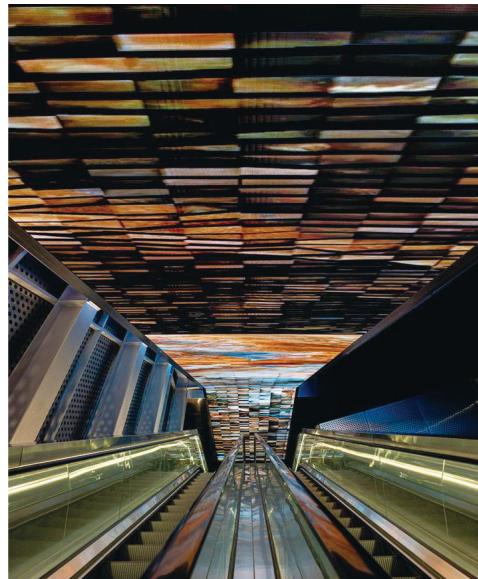
러닝타임 7분

제작형식 증강현실, 컬러, 사운드

창작진 카입×이슬비×이지현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상 세계에 남길 수 있다. 그 메시지들은 가상 세계의 바닥에 새겨지고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촉적되어 세계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흐르고 나면 관객이 남긴 메시지만이 남아 세계를 떠돌게 된다.

\*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058

## 크로마토그래피

참여자가 촬영한 모습이 설정한 결과값에 따라 분리 변화하는 물리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관객 참여 생성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이다.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는 실제 물리학 및 화학에서 사용하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기법이다. 자신의 모습이 설정한 결과값에 따라 분리되고 변화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꼭 실험적인 현상을 연출한 것만은 아니다. 색이 행동을 통해 기록되는 의미를 담아 Chroma-to-Graphy로 해석하는 것이 본 작업물의 연구 개발 목표로 바라보기 적절하다. 나의 크로마가 어떠한 설정값에 따라 표현되는지 바라보며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찾기를 바란다.

제작연도 2023

러닝타임 해당없음

제작형식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생성형 디지털예술도구 웹

창작진 ACC 및 플링커 공동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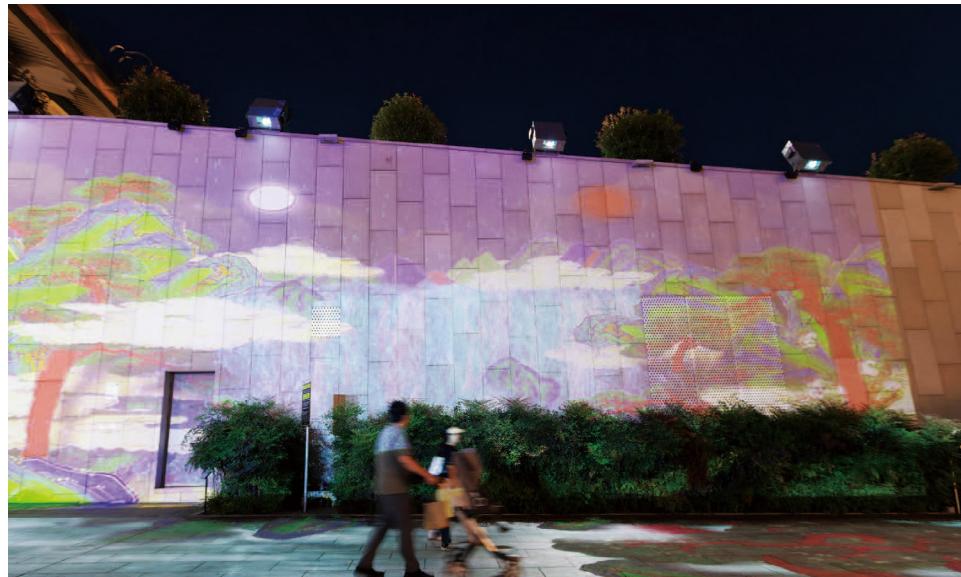


059

#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은 고전 회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조선 왕실의 어좌 뒤에 놓았던 '일월오봉도'를 새롭게 해석한다. 해, 달 그리고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봉도'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ACC 소방도로를 따라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길게 뻗어 나간다. 대형 프로젝터에서 영사되어 생생하게 전달되는 거대한 자연의 모습은 물소리와 어우러져 경이로움을 증폭시킨다. 조선시대의 회화와는 다르게 이이남의 미디어 아트 작품은 역동적이고 체험적이다. 이 작품은 자연을 멀리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숭고미를 전달하면서도 고전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니풍경〉 커미션 작품



060



미리보기

# 화석이 될 수 없어

〈화석이 될 수 없어〉는 인류가 만든 문명이 촉발한 미래의 생명체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작품은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을 가진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인큐베이터를 개발하고, 동물들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생명을 이어가는 세계를 그린다. 인류세의 지표인 플라스틱이 화석으로 쌓여가고 인류의 끊임없는 개발에 지구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소멸·재생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구는 인류의 종말 덕분에 재생 능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질 연대의 시작을 암시한다. 인간은 발전과 파괴를 반복해 왔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곤 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과 같은 원자재 소비는 수질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고, 전기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결국 오염의 근원지만 바꾼 것처럼 말이다. 작가는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박탈당한 동물들의 모습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면서 지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회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반디산책〉 커미션 작품



미리보기

제작연도 2022

러닝타임 5분

제작형식 프로젝션 매핑, 컬러, 사운드

창작진 임용현



061

필름

FILM

03

## 선유후부가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고 영화 외부에서, 우리는 각각 그 시간들이 동일하게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 무빙이미지의 모든 순간을 1분, 또는 1초로 기계적으로 자르면 각 부분의 시간은 서로 동일한 무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선유후부가설화』는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유래된 이향세계 설화이다. 영화는 일정한 러닝타임을 갖고 관객은 그 시간만큼 그것에 구속되기 마련이지만 영화 내에 흐르는 물량적인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전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흐르는 물'에서 시작하여 '바라보는 불'로 끝나는 이 영화는 무빙이미지가 재생되는 공간을 '이향세계'로 정의하고 그 속의 세계와 그것이 재생되는 공간, 영화와 현실의 공간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시간의 상대적인 면을 드러낸다.

제작연도 2021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러닝타임 12분 23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흑백

감독 김민정



## 스틸 사이드

제작연도 2021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필리핀, 아르헨티나, 한국

러닝타임 54분 35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컬러

감독 미코 레베르자, 캐를리나 푸질리아

영화는 비워진 문명의 징표들을 관찰하며 황폐한 풍경 속을 돌아다닌다. 해양생명체들이 벽화에, 그리고 건축적 장식의 형태로 표현돼 있다. 돌고래 한 마리가 기쁘게 공중에 발이 묶인 채 돌로 변해 있다. 바다 속의 끊임없는 생명이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반대편 세상에서 정지 상태와 침묵, 견고함을 유지한다. 인간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두고 간 건축 공간들을 다양한 생명체들이 채운다.

감독들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검색을 통해 관광 속 유령들의 의미를 찾고 미래의 여러 생명체들을 상상해냈다. 제작 기간 동안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영화는 우리가 기억하는 경제 재난의 대참사 이후의 투사일 수도 있다. 또한 발전과 자유의 거짓 약속들을 경험한 세대로서 카팔루코 섬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련성, 즉 아르헨티나의 신 자유주의 경제의 붕괴와 필리핀 출신의 이미지들의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이 내재되어 있다.

##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영화는 대부분의 내러티브가 원격 오디오 대화로 이루어진 에세이 형식의 작품이다. 총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된 영상은 각 챕터 별로 다루는 대상은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개의 언어로 된 음성 내러티브들과 움직이는 이미지들,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가 섞인 이 영상은 주로 두 감독의 가족들이 1990년대에 만들었던 흠 비디오들로 만들어졌으며, 군데군데에 한 흠 콩인 가족이 1960년대에 촬영한 흠 비디오들이 등장한다. 영화는 동아시아의 가족들이 아마추어 촬영 장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며, 나아가 이주와 여행, 성장,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제작연도 2021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홍콩, 일본, 한국

라닝타임 104분 20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컬러, 흑백

감독 판루, 아리키 유



##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은 ‘듣기’에 관한 영화이다. 사운드 중심의 이 작품은 베트남의 중앙고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기독교화, 식민화, 전쟁, 그리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겪은 땅을 배경으로 원주민들의 소리와 음성, 그리고 음악을 전경에 세운다. 또한 영화는 감독과 열여섯 살 딸 사이의 시각적, 청각적 기억들에 대한 대화들로 만들어낸 에세이 영화다. 감독의 전작인 〈판두랑가(Panduranga)〉와 〈5번째 시네마(Fifth Cinema)〉에 이은 원주민 문화 3부작의 완결편이다.

제작연도 2021

등급 전체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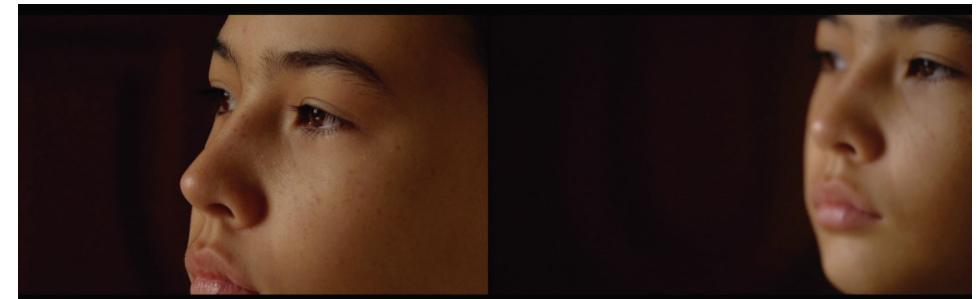
국가 베트남, 한국

라닝타임 45분 42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컬러, 흑백

감독 응우옌 트린 티



# 찬란함의 무덤

이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영화인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의 작품연보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과 사랑, 꿈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정교한 미로로 펼쳐진다. 깊어지는 수면처럼. 태국 북동부에 있는 콘깬은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의 고향이자, 2015년에 그가 펼치는 새로운 영화적 상상의 현장이다. 수면병에 빠진 병사와 그를 간호하는 주부가 만나고, 그 총들은 여러 층위의 현실을 빛내는 제식적 단초가 된다. 위라세타쿤의 부모가 의사로 근무했던 병원, 끝없이 질병에 관한 영화들을 보여줬던 학교 등 사적인 기억 속의 장소들은 그가 꾸는 영화라는 꿈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직조해낸다. 그리고 두 상상적 인물들은 그 속에 숨는다.

다층적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화적 미로는 작가 자신의 무의식적 거울이며 동시에 태국의 역사적 단상이기도 하다. 몽상과 정치는 서로를 횡단하고 투영한다. 두 남녀가 서로의 잠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듯.

제작연도 2015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노르웨이

런닝타임 120분 21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컬러

감독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수상이력

2016 빌드로슈영화제 감독상

2015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최우수작품상

“나는 이 영화를 열병에 걸린 태국에 대한 반주로서 만든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호수 등 기생충처럼 나를 점령한 기억 속의 장소들에 대한 사적인 초상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현실의 질병을 차단하고 영속의 꿈속에 숨는다.”



068



069



공연

PERFORMANCE

04

# 공연 콘텐츠 유통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창·제작 플랫폼이자 문화교류의 허브로서,  
아시아의 동시대적 담론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은

ACC 창·제작 공연과 우수 공연 콘텐츠를 발굴·유통하여,  
국내외 공연예술의 유통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운영하며 예술의 확산과 교류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유통 콘텐츠

### 공연

- ACC 창·제작 레퍼토리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제작한 창작 유통 공연
- ACC 파트너십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대중성을 갖춘 외부 공연단체 및 기관의 창작  
공연을 협력하여 유통

### 공연 영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을 영상화한 공연 기록 영상
-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 소외 지역에 보급

## 유통 방식

### 상시

초청 국내외 극장 및 기관 초청을 통한 ACC 공연 유통

협력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공동 기획 기반 유통

교류 각 기관 간 창·제작 공연 콘텐츠의 상호 교류 유통

## 공모

### ACC 공연 유통처 공모

일정 2026년 11월~12월

내용 2027년 ACC 어린이 공연 유통처 공모를 통한 유통

### ACC 공연 파트너십 및 유통처 공모

일정 2026년 10월~11월

내용 ACC재단과 협력 유통할 민간 우수 창제작 공연 공모

유통처 ACC 공연 파트너십 공연 유통을 위한 유통처 공모

## ACC 영상 유통 공모

일정 2026년 3월~10월

내용 ACC 영상 유통 공모를 신청한 단체 및 기관에 무상 유통

콘텐츠 공연영상, 필름

### 협력 문의

accfc@accf.or.kr

공연/파트너십 유통

062-601-4664

어린이 공연 유통

062-601-4670

공연 영상 유통

062-601-4668



홍보영상

융복합 공연

## 두 개의 눈

효녀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옹왕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일반적인 <심청가>와  
달리, <두 개의 눈>에서는 심학규의 일대기를  
다룬다.

20세에 안맹한 심학규가 딸을 얻음과 동시에  
부인인 괜씨를 해산병으로 잃게 되고, 어린 딸을  
어쩌지 못하다가 동네 부인들에게 젖동냥을 해가며  
키워내는데, 심학규의 남다른 부성은 효녀 청이를  
키워낸다. 눈먼 심봉사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인당수 제물로까지 팔려가는 심청의  
이야기는, 마지막 심청과 심봉사의 재회,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전개된다.

기존 원안에서 가치관의 무게 중심을 덜고, 관객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리를 바라보면서  
심학규만의 로드무비를 만든다.

초연연도 2020

장르 판소리미디어극

창작진 무토,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1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3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5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8m

### 해외공연

2024 키르기스스탄 국립문화원 공동기획 공연

2026 대만 국립전통예술센터 초청

072

073



# 비비런

고성오광대 탈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모티브로 사회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를 알리고자 4차 산업기술인 모션캡처, 페이셜캡처, 확장현실(XR/VR) 기술을 융합해서 제작된 실감 콘텐츠 공연이다. XR 스테이지와 실제 배우의 연기를 더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진 관객 참여형 공연!

## 과연 우리는 지구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인류가 지구를 떠나온 지 오백 년, 2990년 인류가 새롭게 정착한 별 타이탄. 생명체가 없는 지구를 타이탄 위성의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닥터 이매가 발견한 지구 생명체! 미래 재난과 파괴에 휩싸여 쓰레기 행성으로 변해버린 미래의 지구에는 각종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를 먹고사는 비비와 그의 자식 비비런이 아직 남아있다.



홍보영상



074



홍보영상

# 자유결혼 - 영화더빙쇼

국립극장 제1회 창작희곡 공모 당선작인

‘자유결혼(하유상 作)’을 영화화시킨 〈자유결혼(1958)〉에 더빙 연기, 전문 악사들의 연주, 폴리 음향을 결합하여 실감 나는 영화 더빙 공연을 만날 수 있다. 1950년대를 풍미한 최은희, 이미자, 조미령이 출연한 영화 〈자유결혼(감독: 이병일)〉과 광주를 대표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이 만나 탄생한 작품이다.

의과대학 교수인 고박사에게는 혼기 찬 세 딸이 있다. 맏딸 숙희는 외교관과 결혼하지만, 신혼 첫날밤에 소박을 맞는 바람에 뉘 나간 사람이 되어 2층에서 은둔 중이다. 차녀 문희는 막냇동생 성일의 가정교사 준철과 사랑에 빠지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자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막내딸 명희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조수, 영수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아 속상해한다.

초연연도 2017

장르 영화 더빙쇼

창작진 연출 임성재 | 음악 임주신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22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2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7m x 높이6m



075

##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점멸하는 세계를 감각하는 연극.  
깜박임 속에서 나열되는 두 연구원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실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기후 위기와 온라인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좌절과 허망의  
분위기를 그려낸다.  
대륙의 서쪽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반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러시아의 도시, 마가단으로 향하는  
콜리마 대로를 건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위성으로 추적 감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  
실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파생된 가상의 순례길은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를 만들어내고, 그 사용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실제로 걷게 된다.  
기존의 순례 여행과는 다르게 극한의 환경을 뚫고  
외롭게 혼자 걷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기상탐지  
시스템의 연구원들은 여행의 이야기를 점점  
채워나간다.



## 나는 광주에 없었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의 전모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낸다. 관객 몰입형 공연 방식으로 제작되어  
관객들 스스로가 역사를 그리고 작품을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한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숙녀에서 다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얼굴은 점점 잊히고 이제 더는  
오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대에서는 그해 5월의 순간들이 재현되고,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그 해 5월, 오빠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한 아이에게서 잊혀가는  
오빠의 얼굴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얼굴이 아님을,  
그리하여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게 된다.



## 나를 잊지 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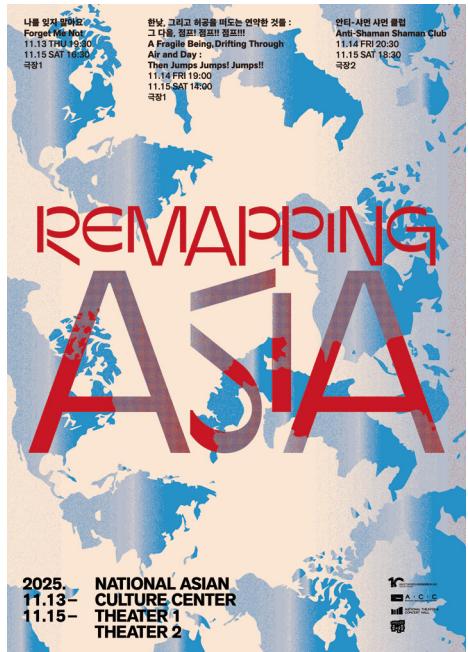
〈나를 잊지 말아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려는 하나의 실험이자,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는) 아시아 연대의 시도이다.

대만, 필리핀, 한국 출신의 여섯 명의 예술가가 모여, 개인적 기억과 초국적 역사에서 출발해 국가, 식민, 계엄, 전쟁의 그림자를 통과하며 세 나라 사이, 전쟁 기념비 속에 기록되지 못한 연결들을 다시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함께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연극은 우리를 위한 기념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은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가?  
만약 기억에 형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5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원쓰니(Wen Szu Ni)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8명 내외

일정

셋업(음향, 조명작업 등)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200석)



홍보영상

## 남편 없는 부두

연이은 전쟁과 분단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도 봉건적 사회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베트남 국민 소설 〈남편 없는 부두〉를 원작으로 (서)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베트남 국립극장이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공연은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젊은 여성 하이잉이 자신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행과 관습을 깨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며 세대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무대 위를 채운 '물'은 삶의 터전이자 수천 년간 생명과 죽음, 절망과 희망을 품고 흐르는 '딘 강'을 압축하여 표현한다. 여기에 아름다운 베트남의 자연을 몽환적인 영상과 색감으로 구현하였으며, 한국의 정가와 전통 무용,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과 가야금, 베트남의 째오 등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연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초연연도 2023

장르 연극

창작진 (서)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베트남 국립극장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9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5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5m x 깊이15m(협의 가능)



# 대리된 존엄

“국제적 분업의 잔인한 불평등 속에서도  
인간성이란,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일까?”

인공 자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미래 사회,  
돈 많은 낭만주의자들의 니즈를 위해 인간의 자궁을  
제공하는 대리모 산업의 한가운데 성실하고 예민한  
소녀 앤리스가 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극장이라는 공간과 연극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작되면 낯선 삶은 관객의 낯선  
감정과 부딪히며 연극성 속에 미끄러진다. 이  
실험적인 서사를 관통하며 우리는 국제 분업의  
잔인한 불평등 속에서도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가능한 것인지 답을 찾아 나간다.



홍보영상



# 동상기

조선의 혼인 장려 프로젝트가 현실화 된다!

판소리와 현대음악 그리고 무용, 현대적이고 세련된  
무대 영상을 가미하여 조선시대 텍스트로서만  
기능했던 조선 최초의 한문 희곡 <동상기>를 보다  
새롭게 각색하여 무대 위에 입체감 있게 펼쳐 놓는  
판소리 음악극이다.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혼인  
풍습에 따르지 않던 노총각과 노처녀가 나라의  
구제책에 힘입어 혼인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전통적  
결혼관의 모체인 조선 후기 희곡 <동상기>의 원작을  
우리가 직면한 현대사회의 결혼관으로 확장하여  
결혼 세태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초연연도 2024

장르 연극

창작진 예락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32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2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연극

## 레드 올랜더스

〈레드 올랜더스〉는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인도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R.타고르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집필한 희곡으로, 극작가 고연옥의 각색과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김정의 몸의 연극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어두운 굴에서 금을 파는 광부들과 도시의 지배자들, 온몸에 붉은 협죽도 꽃을 두른 채 나타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난디니'와 그녀가 기다리는 존재로 도시의 심장을 깨워줄 '론존'을 통해 근대 문명 시스템에 갇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갈망하였기에 맞이한 역설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대사, 익살스러운 표정, 과장된 움직임과 인도 발리우드 영화의 화려한 군무, 경사 무대와 서사적인 빛을 활용한 감각적인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인간 군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자유를 향한 설렘과 기다림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다.



홍보영상



홍보영상

연극

## 로제타

1900년대 구한말 시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나이, 계층, 성별, 장애 등 시대가 가졌던 차별과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근대 여성 교육과 의료 봉사로 생애를 보낸 선교사 로제타.

로제타는 25살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매일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기록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 결혼, 한국에서의 삶, 딸과 남편의 죽음 이후 고뇌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녀가 한 선택까지…

그녀가 86년의 삶 중 44년을 한국에 바치며 써내려간 6권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그녀의 순간들을 조명한다.



082



083

## 사사로운 사서

대도시의 한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도서관의  
사서들과 장서에 관한 이야기를 밀도있게 담은 작품

장마가 한창인 여름날, 도서관의 보존서고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서들은 사람이 일일이 한 장 한 장 닦고 말려주는  
작업을 함께하며 한 계절을 보낸다. 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은 개인의 직업윤리, 과거의 부채와  
트라우마 등을 마주하며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한다.  
사서들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개인이 가진 상처와  
한계를 회복해 갈 가능성을 얻는다.

초연연도 2025

장르 연극

창작진

작연출 강현주 | 무대 조경훈 | 조명 정유석 | 음악 움브레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20명 내외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3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200석)

무대크기 폭13m x 깊이10m x 높이8m



홍보영상



084

## 세메테이

ACC×키르기즈국립극장 공동제작공연 세메테이

고대 실크로드 패권시대를 이끌었던 키르기즈  
민족영웅 '마나스' 대서사를 소재로 한국과 키르기즈  
예술가들의 공동창작 과정을 통해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노마드 양상을

아시아 영웅신화의 현대적 해석

세계에서 가장 긴 영웅서사시 &lt;마나스&gt;

1,000여 년 동안 구전되어온 키르기즈 민족의 영웅  
'마나스' 서사 3부작 중 가장 치열했던 실크로드  
패권시대를 이끌었던 마나스의 아들 세메테이의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키르기즈와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이국적인 양상을 통해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다.

초연연도 2025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유영봉 | 극작/각색 강훈구, 김경주, 유영봉

음악 해미 클래멘세비츠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20명 내외

일정 셋업 3일 | 공연일 철수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 이상(500석)

무대크기 폭14m x 깊이10m x 높이7m



085

# 시간을 칠하는 사람

시간을 칠하는 사람 \* 대극장/야외극장 버전

옛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그 건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시아 최대 규모 블랙박스 극장에서 360° 움직이는 객석에 관객을 태우고 배우들과 함께 주인공 칠장이의 기억 속을 여행한다. 광주를 지움으로써 광주의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광주항쟁을 민중들의 항쟁으로 다시 쓴다.

오브제극 | 시간을 칠하는 사람 \* 중극장/소극장 버전

‘시간을 칠하는 사람’의 스핀오프(번외작) 작품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딸의 죽음을 맞이한 엄마의 아픔을 종이 오브제로 표현한 연극이다. 오브제극 버전은 종이 오브제만으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을 형상화하며, 폭력과 잔혹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강한 울림과 무게, 감동을 전달한다. 관객은 시간과 기억의 파편을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기억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홍보영상



홍보영상

# 전쟁 후에

초연연도 2020

장르 연극

창작진 극단 하땅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대극장-야외 35명 | 중극장-소극장 13명

일정 셋업 4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대

규모

초연연도 2020

장르 연극

창작진 극단 하땅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대극장-야외 35명 | 중극장-소극장 13명

일정 셋업 4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 대극장(블랙박스형, 120석/이동형 객석)

— 중극장(프로시니엄형, 500석)

— 소극장(100석-200석)

— 야외극장(이동형 객석)

무대크기 — 대극장/야외: 폭33m x 깊이57m x 높이14m

— 중극장/소극장: 폭11m x 깊이10m x 높이4m

해외공연

2025 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 공연

2025 일본 베세토 페스티벌 선정작

호랑이도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상은 생존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무기이며,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혼돈과 슬픔, 전쟁의 메아리에 대한 공연입니다.

우리는 전쟁 후에 죽은 영혼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한때 그는 군인이었고, 혁명의 아이였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좋은 친구였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제복을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지금은 죽은 원한의 영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의 일부였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전쟁의 역설을 대표하는 청년입니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면은 짚음이 넘치는 혁명가 아들이 군인이 되었을 때부터, 그가 어느 편에서 싸웠는지 의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발견할 때까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연연도 2021

장르 연극&음악극

창작진

덴마크 북유럽연극연구소-오딘극단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소극장 60분 | 중극장-대극장 100분

투어인원 소극장 15명 | 중극장-대극장 36명

일정

셋업 5일 | 리허설 3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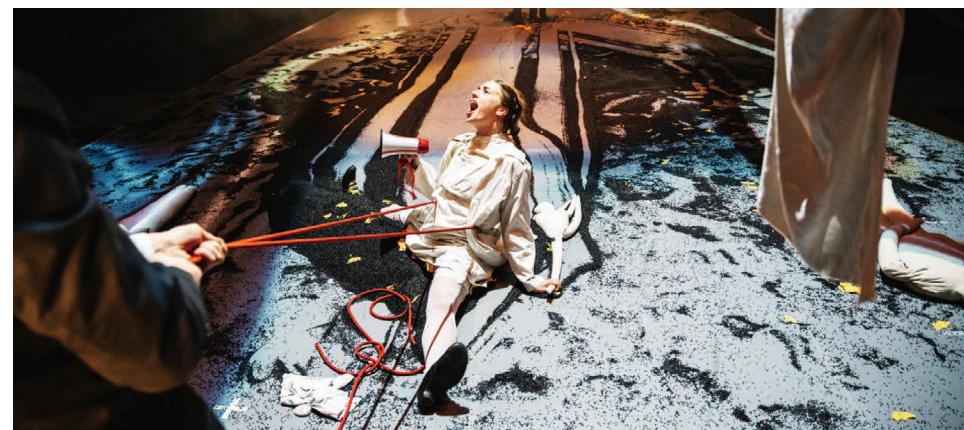
화물 5톤 트럭 2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20m x 깊이25m x 높이8m

해외공연 2023 덴마크, 스웨덴, 독일, 폴란드 유동



## 접시꽃 길 85번지

〈접시꽃 길 85번지〉는 두 승희가 떠나는 여행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난 두 사람이 어머니의 길을 따라 이동하고, 길에서 조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는 전개된다. 두 승희는 여성 영화 주인공처럼 무대 여러 공간을 이동한다. 두 승희의 세상을 형상화한 거대한 구조물은 극의 배경이자 어머니의 흔적이며, 두 승희를 가두고 옥죄는 사회구조로 이중성을 드러낸다. 조선소 용접공인 나승희는 고아가 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죽음으로 어머니에게 차승희라는 친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서 지금껏 받았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이해한다. 나승희는 차승희의 출소 날 교도소를 찾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차승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승희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홍보영상



홍보영상

## 쿠쉬나메 – 끝나지 않는 이야기

고대 페르시아에서 전해온 전쟁 속을 살아간 수많은 무명(無名)씨들의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끝없는 전쟁 속에 무참히 죽어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쿠쉬나메-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인 쿠쉬나메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세상에 '반전(反戰)'과 '상생(相生)'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극이다. 3인의 배우가 각기 페르시아, 신라,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전쟁 속을 살아간 다양한 무명(無名)씨들을 연기한다. 신하, 유모, 난쟁이, 상인, 역관, 뱃사공, 대장장이, 파발꾼 등의 독백은 그들 각자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끝없이 반복되어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독백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한다.



088



089

## 파인 다이닝

“아빠의 화려한 시절이네! 아빠의 황금기”

〈파인 다이닝〉은 한때 경양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아버지 이야기이다. 1980년 도시화의 흐름 속에 서울로 이주한 아버지는 근면함을 재주로 화려한 경양식당의 주방장이 되지만, 식탁 위에 도착한 산업화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주방과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간다. 아버지는 본인만의 레시피로 돈가스를 만드는 요리사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지만, 도시의 흐름 속에서 요리사라는 고유성을 지키는 일은 지난하다. 그의 노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빠르게 규격화되어 간다.

“왜 열심히 해도 제자리일까?  
나는 뭘 위해 달리는 거지?”



초연연도 2024

장르 연극

창작진

극작·연출 김미란 | 드라마터그 김지혜 | 음악 이승호  
무대디자인 이은석 | 조명디자인 서가영 | 영상디자인 신민승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30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2.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 20m x 깊이 25m x 높이 8m(최소)



## 한낮,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연약한 것들: 그 다음, 점프! 점프!! 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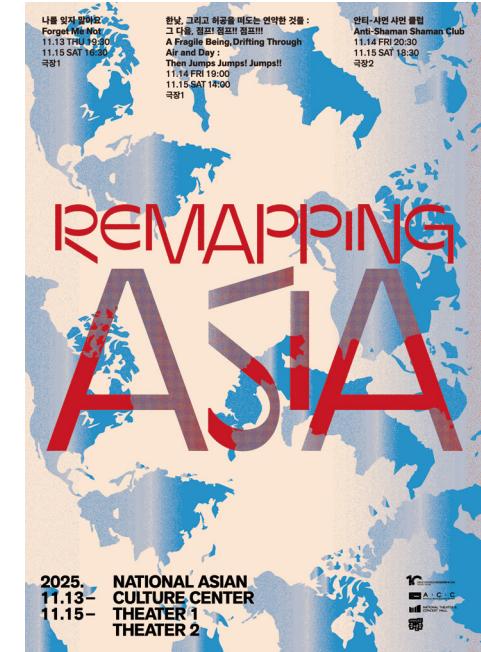
현대 도시 자본주의 속 고립과 내면의 외로움을 탐구하며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존재의 의미와 치유 가능성을 조용히 제시하는 실험적 무대

네 명의 낯선 이들이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외로움, 무료함, 잊혀진 꿈이라는 자신만의 조용한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공연은 현대 도시 생활 속 깊은 고립감을 탐구합니다.

움직임과 정지, 그리고 미묘한 만남을 통해, 단절을 야기하는 시스템에 갇힌 개인들이 어떻게 새롭고 연약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초연연도 2025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와인 차콘 차마이(Wyne Chakorn Chamai)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75분

투어인원 9명 내외

일정

셋업(음향, 조명작업 등)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200석)

## 안티 – 샤먼 샤먼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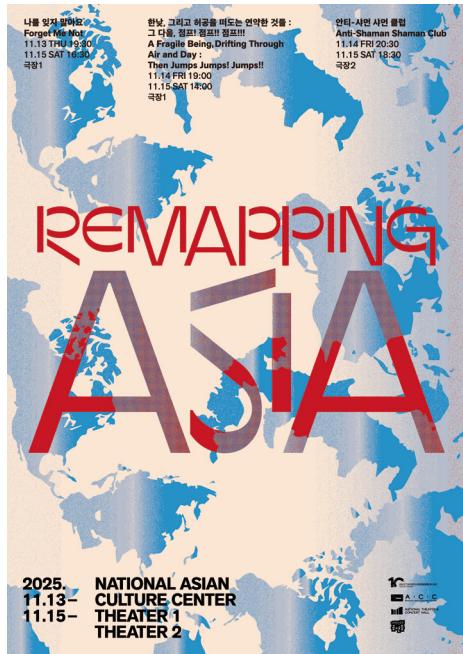
샤먼니즘의 주문이 EDM의 비트로 되살아나  
억압의 역사와 해방의 열망을 교차시키는 무대

샤먼의 '필요'란 우리를 굽어보는 저 미지의 존재들  
신과 하늘을 대신하여, 예기치 못한 슬픔과 맞서고  
그것을 품어 위로하며, 울어야 할 자리를 대신 울고,  
풀리지 않은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며, 개인과  
공동체-마을, 사회, 국가의 기원을 대신 빌어주는 데  
있다. 그들은 하늘의 목소리를 빌려 민중의 마음을  
울리는 존재이다. 샤먼의 주문은 반드시 '공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한국과 아시아 곳곳에는 분명 그런 샤먼들이 존재해  
왔다. 개인의 상처를 감싸 안고, 국가의 폭력과  
재난 앞에 굴하지 않으며, 특히 독재에 맞서던 이들.  
그들은 '민중의 샤먼'이었다. 그들의 주문은 곧 우리  
모두의 주문이었고, 민중의 쌓인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하나의 굿'으로 터뜨려낸 이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문을, 그 굿을 무대 위에 다시  
울려야 한다.

다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홍보영상

##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사물의 계보'를 주제로 '광주'를 이야기하는  
오브제 연극

연출은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기존의  
문법을 비틀고 연극을 새롭게 구성한다. '작품'의  
생산이 아닌 평생에 걸친 연극 '작업'에 도전한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며 작업하는 공간과 장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그 다음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를 통해 '광주'는 두 가지의  
물결로서 흘러가게 된다. 관객 안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해석의 흐름으로서, 그리고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다페르튜토'에 축적되어 다음의  
장소를 향해 흘러간다.

초연연도 2025

장르 연극

창작진

콘셉트·연출·무대미술 적극 | 무대미술 김건태

음악 신원영, 해미 클레멘세비츠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120분

투어인원 20명 내외

일정 셋업 4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100석-200석) (관객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람)

초연연도 2025

장르 다원

창작진 연출 오세혁 | 예술감독 정혜수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80분

투어인원 10명 내외

일정

셋업(음향, 조명작업 등)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200석)



뮤지컬

## 술루우수우

아름다운 호수의 여왕 술루우수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 아이들의 우정 이야기

키르기스스탄의 글 작가와 한국의 그림 작가가  
제작한 그림책 『이식쿨 호수의 술루우수우』를  
원작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를 배경으로 일부 넘버에 키르기스스탄  
전통 음악 앙상블이 작곡과 연주에 참여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자연과 음악을 담았다.  
전쟁 쓰레기로 물이 오염되고 말라버린 호수. 푸른  
호수의 여왕 술루우수우와 소녀 수우는 서로 다른  
언어를 뛰어넘어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호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을 떠올리는데…  
전쟁으로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호수는 맑은 물을 되찾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뮤지컬

창작진 (주)네버엔딩플레이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8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1톤 트럭 2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2m x 깊이12m x 높이13m



홍보영상

뮤지컬

## 쿵짝 두 번째 이야기 – 얼쑤

부모님들에게는 어린시절 읽은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20세기 문학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판소리하는 유쾌발랄 당나귀 판당이 전하는  
뮤지컬 얼쑤!

90년 동안 책 『메일꽃 필 무렵』 속에만 살던  
판당(판소리하는 당나귀)들이 책 속에서튀어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살고 있는 『메밀꽃 필 무렵(1936)』/ 작  
이효석을 시작으로 『봄 봄(1935)』/ 작 김유정,  
『고무신(1949)』/ 작 오영수 속의 이야기를  
신명나는 판소리와 민요로 전하며 관객들과  
한바탕 신명 나게 놀아보는데…  
“얼쑤!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난다!”

초연연도 2017

장르 뮤지컬

창작진 우컴퍼니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110분

투어인원 25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1.5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0m x 깊이8m x 높이7m



094



095

## 그 물

다섯 바탕의 판소리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 물,  
그리고 '물'에 관한 서사를 표현하는 1인 창작 판소리

한국의 음악적, 연극적 원형으로 평가받는 전통적  
판소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공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판소리 '춘향가', '홍보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의 눈대목을 엮어 새로운  
레퍼토리로 선보인다. 소리꾼 정은혜는 독보적인  
목소리로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  
작품을 통해 기존 전통 판소리의 인물과 스토리를  
무대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여 선보인다. 다섯 바탕의  
판소리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 물, 그리고 '물'에 관한  
서사를 중첩적으로 표현하는 이 작품은 전통적  
레퍼토리를 관통하며 동시대의 새로운 담론을  
관객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초연연도 2021

장르 판소리

창작진 정은혜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8m x 깊이14m x 높이8m

## 공연내용

- ① 정정렬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진양조
- ② 박녹주제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 ③ 박초월제 수궁가 중 수궁천리 머다마소
- ④ 강산제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
- ⑤ 박봉술제 적벽가 중 적벽대전



홍보영상

## 대동춤

## 평화를 위한 몸짓과 소리

광주의 5월은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가 되어 우리의 심장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 땅 위에 평화와 민주,  
인권의 가치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위대한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5월의 광주가 남긴 '대동'의 정신이 우리의 몸짓과  
소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 이것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연대이며, 이는 훗날 승리와  
환희로 바뀌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어  
아름다운 역사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초연연도 2020

장르 전통예술

창작진 기획사 류

관람연령 6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45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2톤 트럭 1대, 1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4m x 깊이17m x 높이10m(최소)



096



097

## 스토리 인 아시아

아시아권의 설화를 엮은 책 『백 개의 아시아』에서 입과손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이 두 개 국가의 설화를 원작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남자 또는 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주인공 '소년',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지를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전통음악을 활용하여 이국적이면서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리듬을 통해 2명의 소리꾼이 '다인화자' 기법으로 폭넓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홍보영상

초연연도 2019

장르 판소리

창작진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8m x 깊이14m x 높이8m

해외공연 2023 중국 베세토 페스티벌 선정작



홍보영상

##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원작 홍보가-제비노정기)

'시리렁 시리렁'은 박을 타는 소리.

이 공연은 그 원초적인 울림에서 시작된다.

『홍보가』의 서사는 해체되고, 이야기의 질서는 사라진다. 대신 무대 위에 쏟아지는 음악과 움직임, 빛과 몸의 충돌이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정해진 결말은 없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뿐. 수십 개의 리듬과 몸짓이 관객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곧 이 공연의 진짜 서사다.

양정웅 × 장영규 × 김보람 세 명의 아티스트가 제시하는 이야기 없는 판소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난장(亂場)의 리듬

초연연도 2025

장르 응복합음악극

창작진 연출 양정웅 | 작곡 장영규 | 안무 김보람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0명 내외

일정 셋업 3일 | 공연일 철수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 이상(5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4m x 깊이10m x 높이 7m



# 쨍하고 해 뜬 날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 떠오른 두 개의 태양!  
말라버린 세상을 구할 영웅을 찾아서!

신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으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빠르게 바뀌는 현대의 그 어느 날. 하늘 위로 태양 두  
개가 떠오르며 극심한 폭염이 시작된다.  
땅이 마르고 온갖 생물들이 죽어가고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때, 신학자 김도영이 이를 해결할  
영웅을 찾아가겠다며 사람들을 모은다. 그렇게 모인  
3인은 전설 속 영웅을 찾아 B급 신들이 모여 산다는  
전설 속 그곳, '유리국'으로 향하는데…

초연연도 2019

장르 판소리

창작진 판소리 아지트 놀애박스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80분

투어인원 23명

일정 셋업 3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화물차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홍보영상



# 1도씨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무용 공연

지난 100여년 간 상승한 지구의 평균 온도는 1°C.  
2040년에는 상승 온도가 1.5°C를 넘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인간의  
모습이 펼쳐진 무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끊임없이 기후 비상 사태를 알리는  
사회에서 예술은 어떤 화두를 내던질 수 있을까.  
예술은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관객에게 예술이 기후 위기에 맞서 어떤 행동을  
촉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성찰을 던진다.

초연연도 2025

장르 무용

창작진 안무·연출 허성임 | 무대 최상지 | 조명 이영욱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0명 내외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화물차 2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 이상

무대크기 10m × 10m

해외공연

2025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영국 맨체스터 라우리

영국 리버풀 페브릭 스튜디오



## 공허와의 만남

독일 현대무용단 무부아르의 상임안무가 슈테파니 티어쉬와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가 함께 제작한 한-독 공동 창·제작 공연

황해도 만구대탁굿 전수자 민혜경 만신과 창작무용가 장혜림이 창·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며, '비탄'이라는 주제와 다양한 문학의 전통의례 양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비탄적 정서인 '한'과 이와 밀접한 전통의식인 '굿'을 통해 공동체의 의의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탄적 정서인 '한' 그리고 이와 밀접한 전통의식이자 종합예술인 '굿'에 초점을 두며, 이를 매개로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상실의 슬픔, 비탄의 상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무용 공연이다.



홍보영상

초연연도 2022

장르 무용

창작진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무부아르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5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35m x 깊이20m x 높이8m(최소)

## 마디와 매듭

초연연도 2022

장르 종합극

창작진 극본 배삼식 | 음악 최우정 | 연출·안무 정영두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1명

\* 콘서트, 무용공연으로 변형이 가능 하며, 공연 구성에 따라 투어인원 조정 가능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2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5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35m x 깊이20m x 높이8m(최소)

## 동지부터 하지까지

## 춤과 노래로 엮은 여인들의 이야기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작품이다.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인간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24절기가 작품의 큰 틀을 구성하며, 절기별로 달라지는 풍경과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시간의 마디 마디 안에서 여인들의 '옹이진 마음에' 서리고 '세월에 묻은'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추위와 배고픔, 허리 펼 틈 없는 고단한 농사일을 견디는 날들 속에서 때로는 짓궂게 킬킬대다가, 때로는 떠나보낸 누군가와 한 시절을 절절히 그리워하기도 하고,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한입 베어 무는 복숭아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지난 세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속삭임의 식탁

〈속삭임의 식탁〉은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징후로서 ‘혼밥 현상’을 예술적 판타지로 그려낸다. “왜 혼자만의 식사가 편해지는 세상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공연은 혼자만의 식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식탁 주변에 차려낸다. 혼밥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히타와 음악을 만들고 춤추는 사람들. 공기 청정기를 아무리 돌려도 퀴퀴한 연습실에는 각자 내뿜는 열정과 의지가 뒤섞여있다. 동료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난 후 함께 밥을 먹기로 하지만 모히타는 혼밥이 고프다. 그때, 바람에 떠밀려 날아온 초대장. “혼밥의 섬 혼밥래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혼밥 천국에 어서오세요!” 모히타는 환상으로 이끄는 배를 타고 혼밥래도의 환상에 빠져들고 먹방과 레시피, 위선이 가득한 인터넷 세상 속을 헤맨다. 환상 속에서 그는 분식점, 핸드폰, 녹음실 속 혼자인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데…



홍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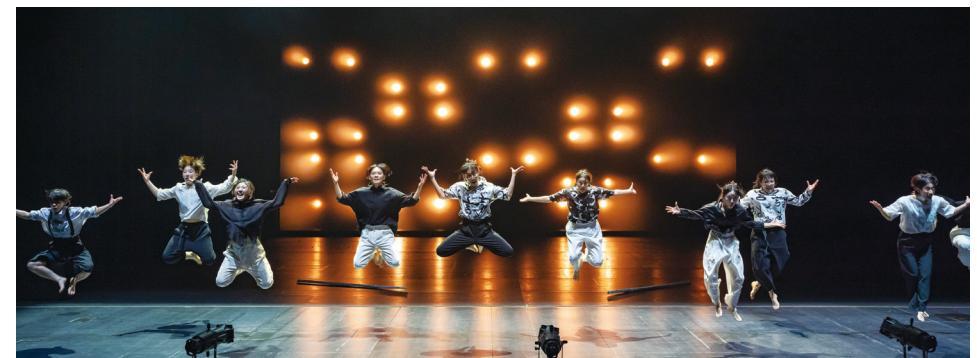
홍보영상

## 솔직히

“죽어서 솔직해져 보자.”

죽음, 그 이후와 이전, 사후세계와 전생에 관한 이야기. 단순하지만 비상한 소재로 재미있게 작품을 풀어내는 한국의 고블린파티와 참신한 발상을 날 것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일본의 캐다고로의 만남 이승에서의 가식이 저승에서의 솔직함으로, 저승에서의 가식이 이승에서의 솔직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 수 없는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일본의 UKIYO(떠도는 세계) 개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 척

〈척〉은 위기의 시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열쇠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국제표준 도량형 단위인 미터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도량형 '척'을 키워드로, 논리적 효율성이 거세한 '다름'의 세계를 재고한다. 손가락을 넓게 펼친 모습에서 유래하여 '신체척'이라고도 부르는 '척'은 길이와 너비의 기본 단위다. 신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의 신체로 세상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세계를 측량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압축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표준화'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는 열린 태도에 닳아 있다. 무용가들은 각자의 '평'을 측정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실험하고, 곧이어 각자의 기억의 시간이 축적된 장소로 뻗어 나간다. 이제, 관객은 몸이 성찰하고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을 바라본다.



홍보영상



홍보영상

## 하이어데어

## 여기에서 거기로 다가가기, 멀어지기

〈하이어데어〉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 퍼져 있는 '원무' 중 하나인 강강술래를 차용하여 지금의 춤과 전통,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하이어데어〉는 여기와 거기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결성과 긴장감에 주목한다.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의 덩어리진 몸들에 밀착해 다가갔을 때 수없이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생동한다. 여기와 거기가 맺는 장소적인 관계에 대한 템색은 지금 존재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도 새로운 것으로 변환시킨다.

춤추는 무용수에게 한 걸음, 혹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발견되는 얼굴 표정의 변화, 손짓의 리듬, 시선 등은 하나의 의미를 작동시키는 표현, 그 자체이다.

〈하이어데어〉는 멀리서 보아 아름다운 대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두 개의 장소성이 혼재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지금 보고 있는 대상과 사건, 그리고 춤을 새롭게 마주하고자 한다.



# 청소년·어린이 공연 YOUTH CHILDREN'S PERFORMANCE

## 길 위의 아이

1960년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의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고립된 두 소년은 탈출의 한 방편으로 방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둘은 죄의식에 휩싸여 혼란을 겪는다. 그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죄의식은 둘의 상상놀이 안에 드러나게 되고 각자의 입장이 다툴을 알게 된다. 친구인 둘의 관계는 처음 탈출을 도모할 때와 달리 변질된다.

2인극 형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놀이가 거칠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고, 소리를 통해 밖과 안을 단절시키며 현실에서 비현실로,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놀이에서 무의식으로의 전이를 통해 관객은 소년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함께 침잠해 들어간다.

\* 선감학원: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 1970년대 말까지 존속된 소년 감화원



홍보영상



홍보영상

## 개굴개굴 고래고래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공감각을 일으켜 주는 공연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어린이 연극이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개구리 구르구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고래 선생님을 찾기 위한 구르구르의 모험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사막화 되어 가는 숲. 개구리 구르구르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래 선생님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배를 타고 고래 선생님을 찾아 나선 구르구르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구르구르는 무사히 고래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2	초연연도 2021
장르 연극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올리브와 찐콩	창작진 극단 즐겨찾기
관람연령 12세 이상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65분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6명	투어인원 13명
일정 셋업 3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일정 셋업 1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7m(최소)	무대크기 폭7m x 깊이7m x 높이4m



## 거인 양갈로

춤추는 음악극 <거인 양갈로>는 필리핀 민담 <바닷물은 왜 짤까?>라는 이야기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 음악극이다.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필리핀 민요 오르데-에를 편곡하여 주요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등 음악 속에 아시아를 담았다. 거인 양갈로와 두 사람을 통해 우정, 배려, 이기심을 이야기하며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옛날 어느 마을, 소금섬에는 커다란 맷돌이 뱅글뱅글 돌며 끝없이 소금을 쏟아낸다. 사람들은 바다 건너 소금섬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풍랑이 닥쳐 더 이상 소금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다. 바다를 보며 한숨만 쉬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사는 거인 양갈로를 떠올린다. 과연, 사람들은 양갈로의 도움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초연연도 2021

장르 어린이 음악극

창작진 창작국악그룹 그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 주 관객층: 미취학아동 및 저학년 가족단위 관객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7m x 깊이6m x 높이3m



홍보영상

## 괴물 연을 그리다

“괴물 연을 그리워하다!”

“괴물 연을 그림 그리다!”

“괴물 연을 상상하다!”

중국의 '춘절'에 대한 사실적 기원에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하여 소년과 괴물 연의 슬픈 우정을 이야기한다.

그림꾼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듣게 된 중국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 도화촌에 부모 잃은 한 소년과 그가 그린 그림 속 친구 '연'의 오랜 우정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떠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하루 마을에 나타나는 '연', 마을 사람들은 '연'을 괴물로 여기고 공격하는데…

초연연도 2020

장르 복합

창작진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3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7m x 깊이6m x 높이3m

\* 무장애(베리어 프리) 공연 가능(화면해설 및 음성해설 제공)



## 깔깔나무

어린이 인형 오브제를 영상과 결합한

복합 멀티미디어 음악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들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우정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일깨워 준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파니는 아끼는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는  
엄마 말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온 파니. 쓸데없고  
지저분한 것들을 모아 간다는 수레 할아버지가  
'곰곰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한 파니는 할아버지의  
고물상에서 경중이, 움찔이 형제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다 같이 '곰곰이'를 찾아나서기로 하는데…

초연연도 2015

장르 인형/음악극

창작진 공방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3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액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4m

\* 영상미디어 활용이 중요한 작품으로 빛 차단 필수

\* LED 별막 설치로 4m 내외의 천장 높이 필수



홍보영상



홍보영상

## 나무의 아이

〈나무의 아이〉는 〈목도령과 대홍수〉라는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남과 다른 아빠를 가진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이야기다.

출연진이 직접 국악기를 연주하며 이야기와 음악을 풀어가는 어린이 음악극으로, 단순하고 쉬운 언어와 액터 뮤지션의 라이브 연주에 움직임을 더하여 아이들의 상상의 폭을 넓히는 작품이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 커다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울고 있는 한 아이… 바로 나무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나무도령이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외톨이 나무도령이지만, 사랑하는 아빠 옆을 떠날 수는 없다. 나무도령은 아빠를 위해 물을 길어다주고 별레를 아내며 나무아빠를 지키고, 나무아빠는 아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가지에 올려 누구보다 높은 세상을 보여주며 나무도령을 키운다. 그런 행복한 때도

초연연도 2020

장르 어린이 음악극

창작진 창작그룹 동화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2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액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8m x 깊이8m x 높이6m

잠시…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 세상을 집어 삼키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위태로운 홍수세상에서 불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빠와 아들은 과연 어디에 다 다르게 될까?



## 마법의 샘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타지키스탄의 전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마법의 샘>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를 치료하고 구할 수 있을까?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평면의 샌드아트와 다양한 그림자 퍼포먼스는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배우들을 만나 공연을 즐기는 모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과 이국적인 의상은 타지키스탄의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신비한 마법의 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마법의 샘을 찾아 헤맸던 왕은 장터의 눈먼 소년이 이상한 노인이 가져온 마법의 샘물로 눈을

초연연도 2020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기운 스토리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국장(500석)

무대크기 폭10m x 깊이7m x 높이7m(최소)

뜨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욕심 많은 왕은 소년을 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사라진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과연, 욕심 많은 왕은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마법의 샘은 어디에 있는 걸까?



홍보영상



홍보영상

## 막대뚝딱 피지컬 – 뺨난 오니

<막대뚝딱 피지컬 – 뺨난 오니>는 일본 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울어버린 뺨간 오니》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다양한 소품과 신체언어를 활용하여, 막대를 부수고 쌓는 조형적인 신체 움직임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색다른 시도로 어린이 관객을 감각적 세계로 인도한다.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색과 모습이 달라 외면받는 뺨간 오니가 친구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나다움’을 이야기한다.

초연연도 2022

장르 신비한 움직임 사전

창작진 신비한 움직임 사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8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승합차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8m x 깊이8m x 높이6m



##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찢어진 동화책을 다시 만들기 위한 인간  
‘미르’와 용 ‘하이’가 떠나는 환상여행

끌없는 호기심과 무모한 상상력을 지닌 두 아이가  
그 어떤 어른의 간섭과 우려 없이 떠나는 여정,  
그 안에서 발견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고유의 색을 담은 무대에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가 만나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용을 좋아하는 아이 미르는 언젠가 용이 되어  
하늘을 훨훨 날며 불을 뿜기를 상상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을 읽으며 놀다가 그만, 동화책을  
찢고 만다. 미르는 동화책을 다시 만들기 위해  
주인공인 용 ‘하이’를 그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꿈속에서 만나는 하이와 미르는 찢어진 동화책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초연연도 2024

장르 국악/어린이 연극

창작진 국악그룹 각인각색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21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국장(800석)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3m

각기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진 용을 만나는 여정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미르와 하이. 다른  
용들처럼 불을 뿜을 수 없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꽃을 뿐은 용을 찾아 나선다.



##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

〈바나나꽃이 피었습니다〉는 필리핀 민담 〈거북이와 원숭이〉를 모티브로 한 타악&무용 넘버별 퍼포먼스 창작 연희극으로 평화로운 우이끼끼섬 어디론가 밀려온 바나나 나무를 찾기 위해 함께하는 두 동물들의 여정을 통해 틀림이 아닌 다른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우이끼끼섬은 원숭이들이 사는 섬이다. 어느 날, 우이끼끼섬에 거북이가 이사를 오게 되고 성격 급한 원숭이들은 느릿느릿한 새 이웃 거북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던 도중 거센 폭풍우와 함께 바나나나무 한 그루가 떠내려오고, 원숭이와 거북이는 섬 어딘가에 밀려온 바나나나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과연 그들의 모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초연연도 2023

장르 어린이 연희극

창작진 타악그룹얼쑤

관람연령 모든연령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14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3대

규모

실외 |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6m

실내 |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12m x 깊이8m x 높이6m



## 보이야르의 노래



### 경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되기

더 이상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난민 문제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함으로써 기존의 통념과 가치에 질문을 던지고, 문화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이야르’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어로 ‘비립’을 뜻한다. 바람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떠도는 난민을 상징하기도 하며, 세상의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바람의 노래의 의미가 있다.

이야기는 가상의 마을 ‘하나린’의 이야기로 상징화 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이슈에 대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작품이다. 난민 이슈를 공간의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무대 형상화 하고자 했다. 호혜적, 인도적 차원의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물리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자

초연연도 2018

장르 어린이 음악극

창작진 올리브와 찐콩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전 일정 가능 (협의 후 조율)

화물 1.5톤 트럭 1대

규모

소극장 이상 가능

무대 포켓이 있어야 함(최소 폭2m × 깊이2m, 상하수 한편)

했다.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낯선 존재에 대해 적대와 편견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의 과정으로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우리는 이야기 속 리아처럼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고 온갖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세 친구

### “도대체 태양은 밤 동안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도대체 태양은 밤에 어디에 숨는지 너무나 궁금해진 새끼 염소, 새끼 양, 송아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친구인 세 마리의 아기 동물들은 목동들의 눈을 피해 몰래 유르트를 빠져나와 모험을 떠난다. 호기심이 많은 새끼 염소, 똑똑한 새끼 양, 힘센 송아지, 어린 세 친구들은 초원을 따라 먼 길을 달려 태양이 어두운 동안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세 친구들은 여러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를 지켜준다. 맹수들을 만나는 가장 큰 위기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친구들은 먼 길을 달려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잘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어른들은 당연히 잊어버린,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궁금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 슈레야를 찾아서

전쟁에 나간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 슈레야.  
슈레야는 홀로 인형 주뿔루와 노는 것에 익숙하다.  
어느날,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에 나타나고  
슈레야는 '아그자'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슈레야와  
주뿔루, 아그자 세 친구 사이가 둔독해지는 만큼  
전쟁도 가까워지는데…  
깊은 밤, 총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마을.  
슈레야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피난길에 오르고  
친구들과 이별하게 된다. 부서진 마을에 남겨진  
아그자와 주뿔루는 슈레야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한다. 폐허가 된 마을과 타버린 언덕을 지나며,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렸거나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슈레야를 찾아서>는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른 인형·오브제극으로,  
극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정과 용기를 나누며 성장한다. 참혹한  
전쟁 속 희망을 찾기 위한 주뿔루와 아그자는  
슈레야를 찾을 수 있을까?



홍보영상



홍보영상

##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아시아 어린이들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어린이 뮤지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강한 책임감과 쾌활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고니와 아시아의  
보물찾기를 시작한다. 지혜롭고 다양한 정보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페리,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똑똑박사 칼리,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엘리, 상상력과 예술적  
에너지가 넘쳐 친구들에게 언제나 웃음을 안겨주는  
키니, 늘 즐거움이 넘치는 시아와 친구들은 아시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 귀엽고 친근한  
동물 친구, 수천 년 간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지혜의  
책,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용감한 영웅  
등 다양한 아시아 각 지역의 귀한 보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초연연도 2017

장르 어린이 뮤지컬(영어 공연 가능)

창작진 플래너지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20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3.5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0m × 깊이7m × 높이10m

해외공연 2017 KOREA FESTIVAL 아랍에미리트



## 아를을 깨물었을 때

‘아를’을 깨우는 순간 머나먼  
옛날의 몽골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항, 한 남자가 가방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낸다. 그러자 어디선가 두 소녀가 나타나 서로 책을 읽겠다며 티격태격한다. 남자는 두 소녀에게 우유 과자 ‘아를’을 건네어주고 세 사람은 함께 ‘아를’을 깨물며 그림책을 펼친다. 세 사람이 ‘아를’을 깨우는 순간, 눈앞에 먼 옛날 몽골의 궁궐이 펼쳐지며 몽골의 쿠타룬 공주, 고려에서 온 지우왕자, 시녀 샤르가 나타난다. 지우 왕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샤르가 주는 ‘아를’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먹질 못한다. ‘아를’을 하나, 둘 먹다보니 어느새 한조각만 남게 되고 샤르는 궁궐 밖의 고향 집으로 가 ‘아를’을 구해오기로 결심한다. 이를 알게 된 쿠타룬 공주도 샤르와 함께 ‘아를’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된다.



홍보영상

초연연도 2025

장르 인형극

창작진 각색·연출 전서연 | 조명 손정은 | 음악 류찬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8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액션규모 소극장(100석-2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6m x 높이4m



## 어둑시니

한국의 사랑스러운 요괴 ‘어둑시니’의  
자기 존재 찾기 프로젝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몸집이 점점 커지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크기가 작아져 끝내 그 존재마저 사라지게 되는 요괴 ‘어둑시니’. 어린 어둑시니인 ‘어둑이’는 오늘도 사람들 사이, 어둠 속 틈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어둑이’는 다시 관심을 받기 위해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상으로 위험한 외출을 한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상처받은 외로운 ‘아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잊히지 않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초연연도 2023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창작조직 성찬파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6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화물차 1대

규모

액션규모 공연 2개 버전

— 소극장(500석 미만)

— 야외극장



##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는 ‘멸종’을 이야기한다.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살 곳을 잃은 동물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불행해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한다. 서울의 어느 작은 달동네, 돈을 벌려 떠난 아빠를 기다리는 한 소년. 마을의 왕두목 할아버지, 구멍가게 아줌마, 친구 같은 형아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소년은 어느 날, 매일 밤 읽던 동화책 속 상상의 세계, 정글에 사는 아기 코끼리가 된다. 정글에서 다시 만난 코주부원숭이 할아버지, 코뿔새 아줌마, 쥐사슴 형아까지. 아기 코끼리는 정글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을까?



홍보영상

초연연도 2021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창작놀터 극단 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2대

규모

액션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8m x 높이4m



## 용감한 탄티

ঝঁঝঁ বাংলাদেশি 민담을 소재로 창작된 <용감한 탄티>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 ‘탄티’의 엉뚱하고도 용감한 여정을 담았다. ‘칸’은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어 아빠 ‘탄티’에게 말을 사달라고 조른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을 사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탄티’. 고민 끝에, 엉뚱하고 기발한 발상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말의 ‘일’! 비싼 말을 살 수 없으니, 말의 알을 사서 망아지로 키우고, 그 망아지가 무럭무럭 자라면 ‘칸’이 탈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한 ‘탄티’. 우여곡절 끝에 ‘탄티’는 알 장수를 만나 말의 알을 사고, ‘칸’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말의 알을 노리는 여우,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는데… ‘탄티’는 과연 ‘칸’에게 말을 타게 해 줄 수 있을까?



##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 용이 되고 싶은 두 이무기들의 이야기

깊은 산 깊은 연못 아래,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수행하고 있는 두 이무기, 청무기와 흥무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곳저곳을 누비며 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드디어 천년의 그날, 승천을 코앞에 두고 검은 구름이 몰려와 인간 세상에는 흥수가 나고, 검은 구름을 잠재우기 위해 두 친구가 출동한다. 과연 두 이무기는 승천하여 용이 될 수 있을까? 문득 '꼭 용이 되어야만 하는지' 고민하는 이무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꿈꾸는 '용'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초연연도 2024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7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1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이상) – 중극장(800석)

무대크기 폭7m x 깊이6m x 높이3m



##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집은 나를 탄생시키고 삶을 이어가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워 나가는 공간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머나먼 미래까지 세상은 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변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똑같은 의미를 간직해 줄 우리들의 집.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나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의 재미난 집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초연연도 2023

장르 팝업 인형극

창작진 쭈스튜디오 햇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6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300석 미만)

무대크기 폭8m x 깊이6m x 높이4m



# 출동! 마임소방관

소방관들의 소방훈련과 화재진압 모습을  
마임으로 알아가는 안전교육 공연

신나는 즐거운 공연방식으로 소방안전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마임, 저글링,  
마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으로 변신한 마임맨들의  
좌충우돌 안전 이야기.

공연 시작과 함께 객석에서 무언가를 찾는  
마임맨들. 불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요령도 알려주며,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소방호스가 관객들에 손에 쥐어지기도  
하여 일부 관객들이 무대에 나와 즐거운 상황에  
함께 참여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배워본다.

초연연도 2018

장르 마임극

창작진 빨간신발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9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300석)

무대크기 폭8m x 깊이5m x 높이5m(최소)

\* 어린이집, 학교 등 투어 가능



홍보영상



홍보영상

# 하티와 광대들

비슈느신이 지키는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 떠나는  
신비한 모험!

〈하티와 광대들〉은 '생명의 황금열매'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를 소재로 창작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고귀한 희생, 생명, 죽음 등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으며 인형, 가면,  
그림자 등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 등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인도의 이국적인 모습을 담았다.

황량한 사막에서 마주친 왕과 아이, 그들은 과연  
황금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의 사막, 신기루  
넘어 '비슈느' 신이 지키는 고귀한 황금나무가  
있다. 황금나무에는 생명열매와 죽음열매가  
열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인도의 '굽타' 왕은  
황금나무에 열려있는 생명열매를 찾아 만나면  
여정을 떠난다. 사막을 헤매는 고된 여정 중 '굽타'

초연연도 2020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극단 토박이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5분

투어인원 10명

일정 셋업 1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소극장(100석 이상) – 중극장(500석)

무대크기 폭10m x 깊이7m x 높이7m(최소)

왕은 황금나무의 죽음열매를 구하러 가는 아이  
'아소'를 만나게 된다. 왕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아소는 왕을 미워한다. 티격태격  
우여곡절 끝에 굽타왕과 아소는 함께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게 되고, 황금나무를 지키는 비슈느신은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는데…



# 파트너십 PARTNERSHIP

06

## 구구선 사람들

〈구구선 사람들〉은 ‘세상은 한 척의 배’라는 은유 아래, 매일같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창작 판소리극이다.

입과손스튜디오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모티프로 삼아, 소극장용 ‘토막소리’들을 먼저 제작한 뒤, 그것들을 하나의 서사적 세계관 안에서 엮어 완창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로 확장해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위고의 원작 속 인물들이 입과손스튜디오 특유의 감각으로 재탄생한 존재들이다.

이 작품은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각자가 겪게 되는 고난은 개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과 동시에 약한 존재들의 연대가 변화와 구원의 실마리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탄 배는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초연연도 2022
장르 판소리
창작진
공동창작(구성/음악) 입과손스튜디오
창본/연출 이상숙   제작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인터미션 없음)
투어인원 23명
일정 셋업 1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화물 1톤 트럭 2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무대크기 폭12m x 깊이10m x 높이7m 이상
해외공연
2022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협력 K-vox 10주년 기념 공연



##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는 잊어버린 소원을 찾아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할머니 춘자와, 그녀를 찾는 가족들의 여정을 그린다. 노년과 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를 배경으로, 치매와 나이듦이라는 소재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70살 생일날, '소, 원하는대로 다돼지'라는 정육식당을 찾은 춘자와 가족들. 가게의 로고송에 맞춰 각자의 소원을 생각하다가 소원이 생각나지 않는 춘자. 소원을 잊은 것도 모자라 식당에 실례까지 해버린 그의 앞에 영훈의 물고기가 나타난다. 춘자의 느슨해진 정신줄 틈새로 빠져나온 영훈의 물고기는 혼란스러워하는 춘자에게 먹으면 젊어지는 물고기 코딱지를 권한다. 코딱지를 먹고 나이에서 0이 빠져버려 7세가 된 춘자는 '거울 속 고춘자', '와이퍼들'을 만나며 환상과 현실, 추억과 회한 사이를 오간다. 그사이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사라진 춘자를 애타게 찾았다니고, 동네 곳곳에서 춘자의 흔적을 마주하며 젊었던 엄마의 모습을 회상한다. 다시 이상한 나라, 7세가 되어 온갖 수모를 겪은 고춘자는 100살은 되어야 갈 수 있는 은빛가루 나라를 알게 되고, 그곳에 가기 위해 똥파리들에게

초연연도 2025
장르 뮤지컬
창작진
작연출 오미영   작곡 노선락   협력연출 음악감독 최민욱
드라마가이드 문정연   안무 밝닝클   프로듀서 김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5분
투어인원 29명
일정 셋업 2일   리허설 1일   철수 1일
화물 5톤 원카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 이상) – 대극장(800석 이상)
무대크기 폭10m x 깊이9m x 높이10m 이상
인생처럼 쓰디쓴 파리똥을 받아먹는다. 그렇게 100살이 되고 보니, 자기보다 먼저 가버린, 그리워했던 가족들이 나타나 잊고 있던 춘자의 소원을 알려주며,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커다란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말해준다. 춘자는 우연히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커다란 나무”를 찾게 되는데… 춘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 브랜드 사업

# BRAND BUSINESS

파트너십

## 토끼전



홍보영상

〈토끼전〉은 조선 시대 전래 설화 〈별주부전〉을 바탕으로 한 가족극으로, 아시아 전역에 공통으로 전해지는 우화적 전통과 약자의 기지, 권력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통해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유쾌하게 비틀며, 아시아 민속 설화의 지혜와 해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통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탑댄스와 퓨전 국악, 리듬 중심의 음악적 연출, 움직임 기반의 유희적 무대, 그리고 다채로운 영상 활용을 통해 시청각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확장시켰다. 의인화된 동물의 성격을 몸짓과 소리로 구현하며, 오브제를 활용한 무대는 야외와 실내 모두 가능한 가변형 구성으로 설계되어, 공연 환경의 유연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 관객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가족극이다.

초연연도 2017

장르 가족극

창작진

극공작소 마방진

작가 고선웅 | 연출 서정완 | 음악 최이안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22명

일정 셋업 2일 |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1톤 트럭 1대

규모

객석규모 중극장(300석-800석) \* 야외 공연 가능

무대크기 공연장 규모에 따라 변형 가능

해외공연

2017 UAE코리아페스티벌 공식초청작 아부다비시아터



## 어린이체험관

### 아시아로 떠나는 신나는 문화여행

어린이체험관은 '아시아 문화 여행'을 주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입니다.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감각과 표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놀이와 체험,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유아놀이터

###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터

유아놀이터는 '시아와 친구들의 무지개나라 탐험'을 주제로 한 영유아 전용 공간입니다.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체험과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도서관

### 책 읽는 어린이들의 소리를 배려한 '와글와글 도서관'

와글와글 도서관은 '책 읽는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책을 읽으며 즐겁게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좌식열람실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아시아 문화와 책 읽는 소리, 상상력이 어우러진 즐거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창작실험실

### 호기심과 상상이 가득한 예술창작 배움터

아시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해 재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와 공연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폭넓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어린이극장

### 예술적 감성과 꿈을 키우는 흥미로운 상상여행

국내 대표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스토리나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 해설과 체험이 있는 공연, 만 0세 이하 영아를 위한 공연, 접근성 공연 등 실험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꿈을 키웁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DLAC  
온라인숍



DLAC  
인스타그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은 ACC 문화상품 브랜드

<DLAC 들락>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DLAC 들락>은 ACC의 전시 공연 어린이 콘텐츠와 연계된 문화상품과 도서를 비롯해,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개성 있고 정성 담은 상품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제안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과 온라인숍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① DLAC Content  
콘텐츠 상품

② ACC  
기관 상품

③ DLAC Signature  
시그니처 상품

④ DLAC Asia  
아시아 상품



콘텐츠 유통 및 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유통팀

문의

공연 062-601-4664, 4670, 4668

시각예술 062-601-4665, 4671

메일

accfc@accf.or.kr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2025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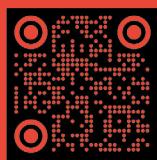
ACCF 콘텐츠북에 소개된 작품의 저작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예술 단체 및 창작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무단 사용 및 도용은 불가하며,  
이용 시 반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리집

www.accf.or.kr





디지털 콘텐츠북